

03

발행인의 글

04

금능인

농부이자 시인인 금능리민 고춘숙

금능리 팔방미인의 멈추지 않는 무한도전

글 | 이윤영

08

금능인

금능리 제주마중 펜션의 한명희 · 유정혜 부부의 제주살이

금능리 제주살이의 답을 찾다, 조화와 여유

글 | 김순일

12

특집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참가하고

여기는 금능리 행복마을입니다

글 | 양민숙

18

금능in

현 금능석물원의 자리에 있었던 수운교

돌에 혼을 불어 넣다

글 | 이윤영

22

금능in

작은 골방에서 시작된 금능교회

언덕 위의 빛

글 | 홍임정

27

금능인게

사진으로 읽는 금능리

금능리 공동체문화를 읽다

글 | 양민숙

32

금능인게

세대별 음식 대담

식식食食하게 이어온 금능의 밥상

글 | 양민숙

38

금능인게

풍물놀이로 봉사하고 화합하는

금능리 풍물패

글 | 김순일

40

금능인게

금능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금능리 해녀회

글 | 김순일

42

금능인게

금능리 역사이야기

동네 형들과 함께 하는 햇불클럽

글 | 강수희

44

금능인게

금능리 역사이야기

사방조림공사로 만들어진 소나무 숲

글 | 김순일

45

금능인게

금능리 역사이야기

열대요란熱帶擾亂

글 | 홍임정

48

금능인게

금능바다의 신선함과 가정주부의 정성을 담은 물회와 조림

17년간 금능포구에서 제주의 맛을 전하는 금능포구식당

글 | 김순일

51

금능인게

금능리 환경에 맞춘 모살밭 고구마 재배법

금능리 모살밭 고구마

글 | 김순일

52

금능스케치

2018년 금능리 마을행사 일정표

정리 | 금능리

53

금능스케치

2018년 꿈차롱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일정표

정리 | 편집부

54

금능스케치

금능리 조직도

제공 | 금능리

56

편집후기





금능인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

발행인 | 김성수 (금능리장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장)

두 번째 금능리 소식을 엮었습니다.

엮는다는 것은 씨실과 날실이 서로 한 올 한 올 제대로 교차하여야만 원하는 형태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하였으니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금능인』 안에는 씨실이 되는 마을의 모습과 날실이 되는 마을주민들의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차곡 차곡 담겨져갔습니다.

올해 금능리는 몇십 년을 금능리의 중심이었던 전 마을회관 건물이 헐렸습니다. 그동안 마을회관으로서 청년회사무실로서 또한 부녀회사무실과 어촌계사무실로서 그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이야기까지, 금능리민들에게는 많은 추억이 담겨져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사진©양성혁





발행인의 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지만, 어릴 때부터 건물이 있었던 모습에만 익숙했던 저로서는 아침, 저녁으로 뿔뿔한 모습이 아직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북적북적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면서 누군가에게 커다란 꿈과 추억을 선사하는 곳이 되겠지요.

또 올해 마을의 큰 성과라면 몇 달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여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전국 3위라는 큰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하면 된다’란 결과를 가져오면서 마을 사람들은 많은 방향으로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의지가 되는 곳이 바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능리는 앞으로도 그런 마을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금능인』이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편집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금능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금능인

\ 금능리 팔방미인의 멈추지 않는 무한도전 \

글 | 이윤영 · 사진 | 김순일

농부이자 시인인 금능리민 **고춘숙**





한 때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금능의 핫 스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일상에서 스스로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숨쉬는 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에너지아저 고춘숙씨! 지푸라기와 흙을 하나씩 물어 날라 눈비와 바람을 막아줄 등지를 만드는 새처럼 제주 한경면 두모리에서 태어나 금능으로 시집 온 후 금능 마을에서 농사일, 해녀일은 물론, 금능 부녀회 풍물 활동으로 다방면에 두루 자신만의 등지를 탄탄하게 만들었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그녀에게 제2의 인생 터닝포인트 장소로 집에서 벗어나 코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이 용이한 점도 있긴 하지만, 바쁜 농사일과 지친 일상을 마치면 반짝이는 눈빛으로 도서관 문을 두들기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배우의 열정이 대단하다. 2017년 1월 문학광장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고, 동년 여름에 색동 어머니 동화구연대회에 참가하여 최고의 영예 소파상을 수상하였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농부 해녀로 불리는 게 아니라, 시인, 동화구연가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금능의 자랑 고춘숙씨를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에서 만나보았다.

이윤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와 가족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춘숙 저는 한경면 두모리 시골 평범한 가정에서 2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나 지금의 남편을 중매로 만나 알콩달콩 때론 지지고 볶고 살며 삼남매를 뒀습니다. 이젠 애들이 성장해서 엄마 손을 떠나고 공기 좋은 시골 누구의 아낙으로 부부가 서로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금능리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윤영 농사일도 하고 해녀일도 하고 마을 풍물패 활동도 하신다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고춘숙 어휴 농사, 내 직업으로 받아들이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젠 많이 익숙해졌지만, 고생 많이 했어요. 힘에 부쳐 버겁고 특히 투자에 비해 소득이 너무 못 미칠 때? 나만 그러는게 아니니까 위로 아닌 위로를 해가며 남편과 열심히 농부의 아낙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풍물, 해녀일은 동네 부녀회 활동이 다른 마을에 비해 왕성한지라 핑계김에 서로 만나서 수다도 떨 겸 겸사겸사합니다. 신나게 악기를 두들기다보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거든요.

이윤영 2017년에 문학광장을 통해 시인등단 하셨잖아요? 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고춘숙 시? 글썄요. 등단이란 말에 웬지 부끄럽습니다. 어릴 적 부터 워낙 두서 없이 낙서를 잘 하고 결혼해서는 처음에 가계부를 썼는데 한쪽 키통이에 조그만 여백이 있었어요. 가계부를 한 15년 가까이 썼나? 훗날 우연히 들춰보니 그간의 내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구요.

애들 행동 하나하나에 뭐가 그리 좋은 지 박수치며 웃던 일, 살다보니 빛이 생겨 남편하고 술

하게 싸웠던 일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을 몇번이고 되뇌었는지 지금 이렇게 웃으며 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 슬플 때 기쁠 때 아님 집안에 행사 있을 때 그날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가계부 한 권에 썼어요.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미사여구도 활용할 줄 모르고 마음 가는 대로 쓰는 버릇이 있는데 어쩔 이 습관이 ‘시’란 마당에 겁도 없이 덜컥 발을 내딛었는지 모릅니다. 마침 도서관에 시창작 교실이 있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강사 선생님이 시 몇 편 어디 보 내보자고 한 게 등단의 계기가 됐어요.

이윤영 시인 등단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시가 잘 써지지 않을 때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고춘숙 시도 연습이 필요한 거 같아요. 순간 순간 마음에 와 닿는 생각이나 감정, 관심 없던 풀 한 포기나 기분을 업시킬 수 있듯 시선과 생각을 어디에 두는 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지한 제 생각입니다만.

이윤영 2017년 7월에 제주지부 색동어머니 동화구연대회에서 1등 소파상 받으셨는데 시인, 동화구연가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나요?

고춘숙 배움에 대한 갈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얻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도 한번 배우겠다고 마음 먹으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네요.

이윤영 동화구연 대회 때 차분한 목소리가 참 좋았는데 원래 성격은 어떤가요?

고춘숙 은근 덜렁이랄까? 꽤나 급한 성격입니다. 서두르다 보니 실수도 많고 잘 잊어버리고 해서 차분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 앞으로 나이에 걸맞게 곱게 늙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늙는다는 단어를 받아들이기엔 왠지 아직 어색하네요.

이윤영 시인 등단하고 어떤 작품 활동을 구상 중인가요?

고춘숙 시 등단 하고 나서 시를 본격적으로 쓰거나 하지는 않게 되네요. 손 놓은 지 오래입니다. 괜히 어설픈 시를 보냈나 싶기도 하고 자꾸 시인 시인하면서 물어보시니 쉼터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윤영 나에게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이란?

고춘숙 친구라고 생각해요. 언제든 찾아가면 반겨주는 편안한 친구처럼 어린이가 되어서 반겨주면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고 친구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때론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도 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공간에 있으면 왠지 차분해지고 즐겁고 배울게 많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한 나에게 는요.

이윤영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은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고춘숙 밤에 공부 하러 나갈 때 남편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무관심이 저에게 오히려 자유롭게 배움에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윤영 금능에 시집 와서 살면서 금능 마을에 대한 느낌과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있을까요?

고춘숙 내가 나고 자란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인데도 처음엔 엄청 낯설었어요. 이렇게 정착하고 살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이젠 살아가는데 주변 환경이 최적인 이 곳이 너무 좋습니다. 탁 트인 바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 섬, 뒤로 보면 푸르고 넓은 들판, 아직까진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많은 저는 제 인생의 반을 금능에 담구고 나머지 삶도 이곳에서 익게 될 겁니다. 등 뒤에서 춘숙언니! 춘숙아! 유덕이 아지망! 유덕이 각시야! 사민이 어멍아! 하고 다양하게 불러주는 정겨운 사람들이 있는 이 마을을 어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윤영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고춘숙 계획이랄 것 있나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끔씩 찾아오는 공허감에 나는 누구? 뭐지? 하고 묻지만 찾아오는 건 다시 물음표일 때가 많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이지만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다름을 찾고 작은 행복을 만들며 살려고 합니다.

이윤영 마지막으로 『금능인』 발간에 대한 격려와 축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춘숙 먼저 『금능인』 2호 발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마을의 오랜 전통이나 관습, 놀이 문화 등을 찾느라 여러 사람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이 없고 어찌 오늘 내일이 있겠습니까. 옛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며 세대간의 격차 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리고 한 번 읽고 버려지지 않고 눈이 자주 가는, 어쩌면 금능 상품화까지도 고민해보는 여러 장르의 소식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금능인』 2호 발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가다오다 만날 때 서로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고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들이길 바랍니다.

인터뷰 내내 환한 미소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는 고춘숙씨!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과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무기력하게만 지내면 누가 나를 찾아주며 관심을 줄 것인가? 가끔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물어봐주고 응원할 것이다.”라는 말처럼 평범한 일상 속 빛나는 순간들이 담긴 고춘숙 시인의 멋진 시집이 기다려진다. [A-IN](#)

금능인

\ 금능리 제주살이의 답을 찾다, 조화와 여유 \

글·사진 | 김순일

금능리 제주마중 펜션의 **한명희 · 유정혜** 부부의 제주살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지금, 금능리에는 520가구, 1,143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그 중에는 금능리가 태어난 고향도 아니고, 또 금능리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던 기억도 없이, 그저 지금 금능리가 좋아서 금능리에 삶의 터를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이주민(移住民)들이라고 부른다. 이들 이주민 중에 금능리 선주민(先住民)과 가장 잘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제주마중 펜션의 한명희, 유정혜 부부**를 만나 그들이 바라보는 **금능리의 아름다움과 제주살이**에 대해서 들어본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금능리 선주민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금능리의 아름다움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금능리 이주민들에게는 금능리 제주살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제주살이를 꿈꾸는 예비 이주민들에게는 금능리 제주살이 대한 조언과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금능리를 발견하다 ＼

부인 유정혜씨는 제주도 여행 중에 금능리를 만난 것을 ‘발견’이라고 표현한다. 그녀는 평생 육지의 한 지역에서만 살아 왔다. 그리고 제주 여행 중 금능리를 지나다가 ‘금능리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환경’을 보고 한눈에 반해 버렸고, ‘이곳이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유정혜씨는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 한명희씨가 40살이 넘으면 ‘가족이 지금과 다르게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소망이었고, 그래서 2년 간의 준비 끝에 2016년 3월에 금능리에 터를 닦고 ‘5명 가족의 제주살이’가 시작됐다.

/ 금능살이의 성공은 운이 좋았을 뿐? /

“우리는 운이 너무 좋았어요”라고 유정혜씨는 해맑게 말한다. “이사할 때만 해도 몰랐는데, 저희 집이 이주했을 당시 이장님과 원담할아버지, 부녀회 회장님, 부녀회 총무님 등 그 당시 마을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집 중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러주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라고 유정혜씨는 말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금능살이 성공 노하우’가 있었다. 첫번째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다. “자립동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남편이 놀지 않고 변함없이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많이 예뻐해 주세요.” 둘째는 인사하는 것이다. “저희는 도시에서 살면서 이웃간에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 인사도 안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금능에서 살면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하니까 마을분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셋째는 참여이다. “마을분들이 마을의 작은 일에도 오라고 불러 주시니까, 그냥 따라가서 심부름도 하고 같이 먹고 즐겨요.”라고 단순히 말하지만 이제 한명희씨는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사진 촬영은 물론이고,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 동영상으로 마을의 가장 큰 축제인 원담축제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낼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앞마당에 바다가 있는 제주마중의 아이들 /



/ 금능리 사물놀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유정혜씨 /



/ 가족과 한라산 백록담에 오른 제주마중 가족 /

\ 가족이 가장 중요한 곳 - 제주마중 \

한명희씨는 육지에서 컴퓨터 AS사업을 운영했다.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고객을 주로 만나다 보니 한명희씨에게도 부정의 스트레스가 컸다. 사람들이 제주로 여행을 하는 것은 대부분 즐겁고 설레고 행복한 일이다. 부부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펜션사업을 준비했다. 바닷가 바로 옆 돌무더기 위에 펜션을 건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한명희씨는 '내가 좋으면, 손님도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다. 그래서 바다로 바로 내려 갈 수 있고, 비양도가 바로 보이고, 잔디밭이 펼쳐진 이곳에 '제주로 오는 손님을 나가서 맞이하는 마음'으로 제주마중 펜션을 오픈했다. 제주마중은 아름다운 풍경과 탁월한 위치 외에 또 하나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가족 손님'만 받는다는 것이다. 보통의 펜션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 손님은 시끄럽고, 시설 파손이 많아서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주마중은 '아이들과 마음 편히 쉬고 잘 놀다가 가는 곳'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이 조용함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다른 펜션을 안내한다고 한다.

이런 진정성이 통해서인지 제주마중은 제주도 서쪽의 대표적인 가족 친화적 펜션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 제주살이는 '이주가 아니고 이민'이다 /

유정혜씨는 제주살이를 시작하면서 마을분들과 호칭문제가 다소 어색했다고 말한다. "우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인 분에게 '언니'라고 호칭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니 더 친근감 있고 좋아요. 호칭은 단지 호칭일 뿐이더라구요." 한명희씨는 제주살이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제주에서 잘 살려면 '이주가 아니고 이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는 '이주'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이민'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주살이와 펜션운영은 육지의 도시생활과 차이가 많다. 유정혜씨는 "특히 제주의 날씨가 가장 어려워요.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해요. 도시에서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주에서는 비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집 밖에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런 날에 여행을 하지 못하고 펜션 안에서 아쉬워하는 손님들을 보면 제가 미안해져요"라고 말한다. 한



명희씨는 금능리에서 제주살이를 준비한다면 “금능리의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도록 1년은 살아보아야 금능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 바다 수영장과 한라산 눈썰매장은 제주살이의 선물이다 ＼

“아이들이 금능리 제주살이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도 환경’이지만 ‘가장 불편한 것도 환경’이에요. 금능리는 아이들이 놀기 좋은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육지에서 흔한 놀이동산이나 극장 등의 놀이시설이나 먹을거리가 없는 환경이 아이들 입장에서선 아쉬울 때가 있어요.”라고 유정혜씨는 말한다. “제주살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아이들 간식이나 식사를 늘 직접 만들어서 먹어야 하는 것이 낯설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흔한 치킨과 피자, 중국음식, 분식이 배달되는 곳이 거의 없고,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가야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생선을 좋아하는데 이웃분들이 나눠 주는 싱싱한 생선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먹거리입니다. 또 여름에는 집 앞의 바다를 수영장처럼 사용하고, 겨울에는 한라산에서 눈썰매를 타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추억이에요.” 한명희씨는 “초등학교의 경우 금능리에서 제주살이를 하면서 아이들 학원교육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다면 금능리 제주살이를 강력 추천합니다”라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표현한다.

두 부부의 금능리 제주살이 만족도는 각각 91점과 90점으로 매우 높다. 그들은 복잡했던 도시의 삶을 떠나 제주 해안가 작은 마을-금능리에서 이웃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가족의 얼굴을 바라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금능리 제주살이의 정답은 ‘조화’와 ‘여유’다. **IN**

/ 제주마중 펜션 /



/ 제주마중 펜션의 한명희 유정혜 부부 /



\ 여기는 금능리 행복마을입니다 \

글 | 양민숙 · 사진 | 양성혁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참가하고





특집 공동체

\ 들어가며 \

가을 햇살이 이울고 있다. 며칠 안 남은 가을이 아까워 자주 하늘을 올려다본다. 제주의 하늘은 단 하루도 같지 않다던, 그 하늘을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던, 그래서 제주로의 이주를 결심했다던 한 친구의 말처럼 오늘의 제주하늘 역시 구름의 연주가 한창이다. 주변에 이주해 온 분들이 많아서일까? 제주에 대한 찬사를 늘 듣는다. 덕분에 평범했던 제주생활이 감사한 일상으로 바뀌고 있다.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동체문화를 중요시 여긴다. 흔히 ‘웬당문화’라고도 불리는데,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살짝 폐쇄적이면서도 제주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정체성이 이 공동체문화를 탄탄하게 유지해가고 있는 것 같다.

마을에서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면서도 이 부분이 가장 편하였기도, 가장 불편한 점이기도 했다.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별 탈 없이 진행되다가도 어느 정도의 확장 선에 서면 어김없이 발 휘되는 폐쇄적인 성향이 더 이상의 진행을 불가하게 했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마을은 여전히 많은 일과 행사를 치루기 위해 바빴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함께 바빴다.

몇 년을 함께 해오던 도서관을 떠나게 되니, 객관적인 시각으로 마을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조금했던 마음이 떠난 자리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이 보였다. 진작 끈을 놓았으면 좋았을 걸,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 누가 도전하자고 했을까? /

그 무렵이었다. 김성수이장님이 전화를 주셨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한 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라는 전화였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라면 많이 들었었다. 2년 동안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마을 만들기 책자 제작을 위해 마을마다 다니며 취재를 한 경험이 있었기에, 필자에게는 익숙한 텍스트였다.

“그렇시다.”

그때만 해도 그 과정을 모르고 너무도 쉽게 대답을 해 버렸다. 한 번 같이 해보자고 하였지만, 시간은 부족하였고 준비해야 될 것은 너무도 많았다.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여유도 없었다. 제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단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장님과





부지런히 준비하고 시청에 제출하니, 시청에서 마을 답사를 왔다. 마을의 자원, 문화사업, 마을 행사 등 금능리에 대한 모든 인터뷰가 끝난 며칠 후, 제주시 대표로 제주도 대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기쁨도 잠시, 제주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마을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했고, 서류심사를 위한 활동자료도 만들어야 했다. 우선 양기철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자원(자연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 인적자원 등)과 마을 문화공동체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문화사업 진행에 대한 활동자료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문화 사업은 원당축제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으로 초점을 맞췄다. 내용이 너무도 방대했다. 정해진 분량에 맞춰 주요사업을 간추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정도였다. 덕분에 여기 저기 흩어졌던 사업들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동영상 제작은 금능으로 이주해 온 제주마중 한명희대표가 맡아서 해주셨다. 매일 밤마다 리사무소에 모여 토의하고 준비하고 워드작업하기를 반복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마을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모은다는 것은 감동을 넘어 경이로웠다. 마감 하루 전날에야 활동자료가 정리가 되어 나한테로 넘어왔다. 내가 맡은 부분은 10분이 되는 PPT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 꼬박 밤을 새웠다. 그래도 부족했다. 다음날 오전까지 놓쳐서는 안 될 자료들을 다시 챙기면서 발표 순서에 맞게 자료 배열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속도 모르고 정직하게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왜 이 힘든 일을 하자고 했을까? 제안한 이장님께로 자꾸만 화살이 향했다. 이장님도 나도 아팠고, 모두가 극에 달하도록 예민해져 있었다. 사실, 고백하자면 발표연습을 하지 못했다. 이장님과 내가 공동발표하기로 하였는데 그동안 제출서류에 쌓인 채 지나다 보니 두 사람이 함께 모여 발표준비를 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 하나의 마음으로 \

감기로 목은 잔뜩 쉬어 있었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아침부터 들던 날이었다. 행사장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니, 대형버스 한 대를 타고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분들이 우르르 행사장으로 들어오셨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든든함이 따스하게 밀려오는데, 이게 바로 마을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마을 아이들이 만든 노래를 마을 어른들이 박수 치며 함께 부르고 발표 잘 하라고 격려의 박수를 힘껏 쳐주고 발표할 때는 실수할까봐 두 손 모아 지켜봐 주고, 끝나서는 잘 했다고 응원의 박수를 아낌없이 쳐 준 마을 분들의 그 마음에 눈물이 났다. 결과가 좋았다. '문화복지부문' 제주도 대표로 선정이 된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설레고 기뻛고 뭔가 그동안 묵묵히 해왔던 일들에 대해 뒤늦게 인정을 받은 듯, 감동에 쌓였다. 딱 하루였다. 다음 날부터는 중앙 본선을 대비한 작업이 다시 치열하게 이어졌다. 제주대표로 선정이 되었다고 무조건 본선대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중앙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고 우리가 제출한 활동자료가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 현장종합평가를 거친다고 하였다. 그 점수로 각 부문별 다섯 마을이 중앙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시간이 촉박했고, 우리는 다시 매일 밤마다 모였다. 각자의 일을 마무리하고 밤마다 모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어쨌든 마을 분들과 함께 중앙무대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에 설렘이 더 컸던 시간이었다.

그날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뜨거운 여름 햇살을 맞으며 운영위원회 송문철부위원장님 외 몇 분은 살짝 방치되었던 마을길 정비를 해주셨고, 문영남 운영위원님 외 몇 분은 원담축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물 손질을 하기도 하셨다. 홍준희부녀회장님 외 부녀회원들은 마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금능리 풍물패 박경삼회장님 외 회원들은 또 그 뜨거운 햇살 아래 풍물공연도 해주셨다. 바쁜 일상,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 마을을 위한 시간을 내 준다는 것은 애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을회관 가득 모인 마을 분들과 중앙에서 온 심사위원 앞에서 이장님과 함께 마을브리핑을 했다. 도청에서도 시청에서도 박원철도위원과 고경희한림읍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금능리를 응원해 주셨다. 금방 끝난다고 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사

업에 대한 이야기, 문화공동체 이야기, 남녀 성별대비 참여 이야기, 원담축제와 마을 재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장님과 내가 각각 맞는 질문에 대답을 하였고 심사위원들과 마을답사도 하였다. 답사 중 심사위원들이 '참 고생했겠다'란 격려의 이야기를 전했다. 느낌이 좋았다. 비양도가 바라보이는 금능 바닷가에서 금능리의 지난 시간을 이야기 나누며 순간 순간 울컥거림을 애써 참아야만 했던 시간도 그렇게 흘렀다. 중앙본선대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이장님이셨다. 둘은 기쁘다는 말은 서로 빼고 "아이고, 다시 고생이네."라는 대화를 나눴지만, 그 안에 담긴 큰 기쁨은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잠시 침묵으로 이어진 시간으로 알 수 있었다. 본선대회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여유는 있었으나 원담축제 준비가 더 급해서 일단 올해의 원담축제를 끝내고 본선대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 행복마을로 가는 길 /

원담축제가 끝나고 중앙으로 갈 팀을 꾸렸다. 일단 발표자와 준비위원은 도 예선부터 함께 한 사람이 많았고, 7분 정도의 마을퍼포먼스에 출연할 출연진을 정해야 했다.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무대에서 몸으로 전하려면 연령대 별로 사람이 필요했다. 시나리오의 초안에 맞춰,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에 필요한 인원을 부탁했고 분위기를 책임질 어린



이들 섭외도 원활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퍼포먼스의 주인공 가족은 금능리로 이주해 마을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김순일씨 가족이 고맙게 참여해 주셨다. 무려 사십 명이 출연하는 퍼포먼스였다. 7분 안에 사십 명이 무대에 올라 마을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지라 정확한 동선, 대사, 동작까지 맞춰야만 했다. 무대의상과 무대 배경, 소품, 음향 등 준비해야 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다시 밤마다 모였다. 연습에 연습으로 지칠 법도 한데 지치지 않는 마을 분들을 보며 이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지 원천이 궁금했다. 동영상, 발표, 퍼포먼스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동시간도 포함해서 이십분이었다. 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했고 그 안에 몇 달을 준비해 온 우리의 이야기를 아낌없이 전달해야만 했다. 사실 몇 달의 준비 기간이었지만 지금까지 금능리를 만들어 오고 지켜오고 가꾸어 온 아름다운 금능리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정말 잘하고 싶었다.

대회 날이 다가왔다. 제주에서 사십 명이 단체로 대전까지 올라가야 되어서 전날 아침 비행기를 탔다. 비 소식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제2의 장마가 예상된다는 예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지라,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퍼포먼스에 사용할 집까지 있으니 걱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걱정엔 불과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전날부터 조금씩 복통을 호소하시던 이장님이 공항으로 가기 위해 모인 당일 날 이른 아침, 병원에 갔다가 ‘맹장염’을 진단받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이장님을 만류했지만, 이장님은 끝까지 괜찮다며 약봉지를 한 아름 안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청주공항에서 행사장까지 가는 길, 그 버스 안에 탑승한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별 실수 없이 연습한 만큼만 무대에서 기량을 펼치는 것이 목표였다. 이장님은 점점 상태가 나빠졌고, 밤새 링거투혼으로 버티셨다. 급할 경우 그 지역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밥 한술 뜨지도 못하셨다. 금능리 발표까지는 버티시겠다는 이장님의 선

택을 미련하다고 해야 할까? 책임감이 넘친다고 해야 할까? 안타까웠지만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의 대표로 몇 달을 준비했고, 마을사람들을 인솔해 대전까지 간 상황이니 그 심정은 오죽할까? 이해가 되었다.

발표 당일, 대회장은 전국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친 마을이 대회장을 채웠다. 각 부문별로 발표장소와 발표시간이 달랐다. 제주에서는 세 부문에서 각 한 마을씩 세 마을이 중앙에서 만났다. 서로가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는 모습이 참으로 정겹고 예뻐다. 역시 제주다웠다.

드디어 우리 마을 순서, 별 탈 없이 준비한 만큼 했다. 아니, 오히려 무대에서 더 강했다. 어찌면 이렇게 실전에 강한 사람들이 있을까? 연습할 때 무대를 휘젓고 다니던 아이들의 무질서함도 무대에서는 자유로움으로 빛을 발했고, 쑥스러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시던 어르신들도 무대에서는 크고도 넘친 동작으로 무대를 꽉 채워주셨다. 물론 이장님도 최고의 발표를 해 주셨고 나도 최선을 다했다. 끝까지 긴장함으로 시스템을 맡아주셨던 한명희 대표님도, 미소로 응원하던 양기철감독님도 비로서 안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따듯한 사람들, 동행 \

‘문화복지부문 동상’, 상금은 천만원이었다. 전국에서 3,220개 마을이 신청했고, 이중 각 시도 예선과 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중앙에 올라온 스무 마을, 네 개의 부문으로 심사할 중에 문화복지부문 3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니, 너무도 잘해냈다.

본인의 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했을까? 본선출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스폰을 받고, 의상과 소품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을 제주시내 상가를 찾아다니고 또한 자료 챙기고 서류 준비하고 연습하느라 몇 달을 새벽에야 귀가하셨을 이장님, 마을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함께 하는 내내 큰소리 한 번 없이 몇 달을 동

행해 주신 마을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는 아름다운 금능 마을 분들이 계셨기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제주개발공사,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박원철의원님 등 우리가 가는 길을 힘껏 응원해 주신 여러 기관 및 관계자분들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한 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라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이번 도전은 많이 힘든 여정이기도 하였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결과를 떠나 따듯한 우리가 함께 한 그 과정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오늘도 금능리 마을회관 사무실을 들어서면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동상 - 금능리마을’ 이라는 상패가 눈에 들어온다. 앞으로 시간은 우리가 지나온 만큼 천천히 혹은 빠르게 흐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시간은 오래오래 우리의 기억 속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 나오며 /

언젠가 왜 그 오랜 시간을 금능에서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 있다. 그때는 금능사람과 결혼을 하였기에 그냥 그냥 금능에 머물러 있다고 대답을 했었다. 지금 다시 누군가 그 질문을 내게 한다면 내 대답은 분명 다를 것이다.

혼자보다 함께 해야 더 강한 마을이기에, 에너지와 정이 넘치는 마을이기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뺑이 되어 주는 마을이기에, 정말이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을이기에, 난 아직도 금능에 살고 있다. 요약하자면 제주가 자랑하는 그 공동체문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금능리 행복마을’이라는 것이다.

늦가을, 제주의 하늘은 여전히 연주중이다. 우리 금능리 사람들의 가슴 안에서도 늦가을을 연주하는 음악 한 곡이 따듯하게 흐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N





금능인

+ 돌에 혼을 불어 넣다 +

글 | 이윤영 · 사진 | 양성혁

현 금능석물원의 자리에 있었던 수운교



- ❶ 금능석물원 입구
- ❷ 석굴암 지장보살상을 모셔놓은 동굴 내부
- ❸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 국민급 인사와 귀빈들에게 증정했던 현무암 돌하르방
- ❹ 소도리 하르방
- ❺ 일동 서경보 스님
- ❻ 금능석물원 입구 5층 석탑 전경





금능 in



이디
it地

+++++



금능 사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던, 가족의 건강과 행복 소원을 빌기 위해 한번 쯤 발길이 닿았을 금능법당.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친구 엄마가 방안에 누워서 손으로 허벅지를 두드리며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며 불경을 읊조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절에 가면 왠지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부처의 얼굴은 보는 이에 따라 미소를 짓는 듯도 하고 마음 속의 죄를 꿰뚫어 보는 듯도 하다. 그것은 아무래도 내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내세를 믿는 믿지 않는 일단 절에 들어서고 불상을 접하면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게 된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선하게 살면 극락에 간다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금능 마을에도 리민들이 불공을 빌수 있는 금능법당이 있었다고 한다.

법당 있던 곳이 지금은 주차장으로 바뀌고, 법당은 석물원 안쪽으로 이전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금능에 불공을 들이던 장소를 찾아 금능석물원으로 가서 장공익 명장의

의 아들 장운봉과 사위 이용규를 만나 금능 법당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959년 3월 금능리 수운교 금능지부에 법사로 재직중이던 장공익 명장은 동년 7월부터 여가를 틔타 제주의 대표적 수호신인 돌하르방을 조각하면서, 세계 법왕으로 알려진 일봉 서경보 선사와 관련된 석탑과 석불 작품들을 만들었다.

일봉 서경보 徐京保, 1914-1996 스님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박사 학위 123개의 기네스북에 올라있고, 제주도 산방굴사에서 수계 득도한 초대 법왕 法王으로 경남 의령에 그의 맥을 이어가는 일봉사 一鵬寺가 있으며 조각가 장인 장공익 명장께서는 같은 제주도 출신인 서경보 선사를 숭상하는 뜻에서 그에 관한 석조를 제작했으며, 장공익 명장하고는 사제관계라고 한다. 금능석굴암 내에 석굴암 굴 안에는 지장보살님 좌우보처 左 右補處가 모셔져 있어 대한 불교 선교종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종정께서 세 차례나 좌선하시고 난 후 제주 석굴암으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



금능인

+++++



석굴암 지장보살상은 죽은 사람을 관장하는 보살이다. 그 굴 안에는 꽤 넓은 동굴내의 석굴암처럼 부처님을 만들어 모셔놓았다. 굴의 천장에서 빛을 내고 있는 전등 주위에 넓적한 풀잎이 달려 있다. 전등 불빛과 광합성을 하여 자라는 모양이다.

5층석탑은 1989년 5월 26일 태국왕 벤저 왕립사원 王立寺院에서 부디봉 대승정으로부터 석가보니 진신사리 봉수 奉受하여 육과를 대한불교 선교종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종정께서 봉안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5층석탑 우측으로 석굴이 있는데, 금능석물원 내의 길이 200m, 높이 7m, 폭 45m의 자그마한 굴로 입구 좌측에 해담수가 있어 바다 조류 수위에 따라 물이 많고 적을 때가 있다. 석굴 입구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왼쪽 편에 작은 폭포 물이 떨어지는 이곳을 정구수라고 불렀다. 정구수 굴 유래는 1900년대 초 조선 철종 한 사냥꾼에 의해 발견된 굴이다. 정씨 성을 가진 한 사냥꾼이 개를 데리고 사냥에 나섰다가 잃어버렸던 개의 몸이 젖은 것을 의아하게 여겨 개

가 나타난 쪽을 뒤지다 발견한 곳이 이 굴이다.

정구수라는 이름은 포수의 성이 정씨이고, 개가 그 구멍을 찾았다고 해서 “개 구 拘”자 “물 수 水”자를 써서 정구수라고 하기 시작했다.

정구수 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마을에 수도가 없었을 때는 남탕과 여탕을 나누어 씻기도 하고 생수로도 사용했었다. 입구 쪽에 있는 샘은 여탕으로 지역의 여자들이 이용을 하였고, 굴 깊숙한 쪽은 남탕으로 남자들이 이용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는 이곳이 데이트 장소이기도 했다.

금능석물원은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245번지에 위치한 15,000평의 부지에 한국의 명장 칭호를 받은 장공익 1931년생, 87세 명장께서 일생을 석조 石造에 혼신의 열정을 바쳐 젊음을 불태우며 제작한 제주도의 생활상을 표현한 돌하르방과

+++++





금능 in



이디
it地

+++++

여러 가지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는 곳이다.

1993년 석공예 부문 명장으로 지정된 장공익 명장은 평생을 돌을 만지면서 살아온 분이다. 제주인의 삶, 제주의 문화만을 작품 속에 담기로 하고,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정과 망치를 통하여 새겨 나갔다. 작품 속에 눈물도 담고 웃음도 새겼다. 괴로움도 파고 즐거움도 쪼았다. 가족 사이, 남녀 사이의 끈끈하고 뜨거운 애정을 주제로 삼기도 했다. 석물원 안쪽으로 들어가니 크고 작은 돌하르방들이 갖가지 표정으로 서 있다. 그가 조각한 현무암 돌하르방은 예술적인 가치도 높이 인정받아 우리나라를 찾은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장쩌민 전 중국 주석,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수많은 국빈급 인사와 키팀들에게 증정했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캐나다, 중국 등으로 나가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제작한 돌하르방과 세계 불교 법왕이었던 일불 서경보스님의 석상을 비롯해서 해녀상, 동자상, 물허벅을 지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상을 비롯해 제주의 전설을 돌로 표현한 작품 등, 제주민의 생활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조각품들이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작품들이 석물원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명소가 되었다. 제주도에 는 제주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도 많고 전시장도 적지 않지만, 한 장인의 힘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토록 무르익게 그려내고 있는 금능 석물원에 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소망한다. A-IN



+++++





금능인

+ 언덕 위의 빛 +

글 | 홍임정 · 사진 | 안민승

작은 골방에서 시작된 **금능교회**  이디
it地



- ❶ 금능마을의 첫 기독교 예배터가 되었던 박순임 권사님 덕 방
- ❷ 금능교회의 역사와 삶을 함께 해온 박순임 권사님
- ❸ 금능교회의 십자가 조형물





금능 in



이디
it地

+++++

금능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박순임 권사(82) 댁을 방문했던 이틀 후, 이번에는 권사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한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경황없이 중언부언 했던 것 같아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책에 실린다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년도와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 왔어요.”

권사님의 말대로 수첩에는 금능교회의 연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권사님 댁의 가정예배로 시작해 지금의 교회 터를 마련하고 헌납하여 금능리 최초의 교회를 세우기 까지, 이를테면 금능교회의 전신을 단 세 장으로 요약한 것에서 권사님의 겸손한 성품이 느껴졌다. 권사님은 작은 교회 수첩에 목회자의 부임과 사임, 타 교회에서 후원받은 현금 액만을 적고 있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소금 세례를 받았던 일이나, 자신에게 던져진 팔 알갱이들을 주워서 밥을 해먹었다는 일화들은 취재에 동행했던 김영아 할머니(82)가 대신 이야기해준 것이었다. 그것을 잠자코 듣던 권사님의 응대는 “팔밥 맛 좋던데” 한 마디 뿐이었다.

권사님의 교회를 일컫은 세월에 대해 김영아 할머니는 “그 역사가 굉장히 깊지.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껴”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우리 권사님은 천사나 마찬가지라고 말해.” “그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한 김영아 할머니의 말은 교회의 역사라기보다 권사님의 믿음에 대한 경의의 표현일 것이다.

권사님이 교회의 첫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1971년에 제주로 들어와 이 마을에 살면서 남의집살이를 하다가 1988년에 처음으로 이 집을 장만했어요. 그리고 이듬해부터 마을의 교인들과 함께 저 방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요.”

권사님이 마당에 면해 있는 작은 방을 가리켰다.

“이전까지 금능리의 교인들은 협재교회로 다녔어요. 그러다 금능에도 교회를 개척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라요. 협재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안유상 목사님이 다른 교단에서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적극 권하기도 하셨고, 또 마침 제가 집을 장만했던 터라, 그럼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로도 시작하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제주시의 몇몇 교회들에서 매달 일정하게 후원금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권사님은 당시의 고마웠던 손길들을 수첩에 꼼꼼히 적어놓고 있었다.

「1989년 12월 21일 날부터 영락교회서 삼만 원 주시고, 성안교회서 육만 원, 협재교회 삼만 원. 1990년 6월부터 등대선교회서 월 칠만 원씩 보내주었다. 예배드릴 때마다 다과로 지출 만 원 씩 하고, 목사님 수고비로 월 삼만 원 드리다」

“그것을 모으고, 모으고 한 것이 백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권사님이 말했다.

“예배 볼 때 다과라도 사먹으라고 보내주는 것이었는데, 내가 집사님들하고 의논을 했지요. 먹으란다고 다 먹지 말고 저축을 하자. 그러면서 수첩에 저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점점 모아지는 거라요. 그게 백만 원 돈이 되고 나니까 이걸로 개척을 하자.”

금능리 교인들의 예배처를 일주도로 변에 면한 권사님 댁으로 옮긴 지 2년 만이었다. 당시에 백만 원이면 큰돈이었다고 김영아 할머니가 이야기를 거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개척이란 담임목사와 일요예배를 갖춘 교회당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백만 원은 용기를 북돋울 만한 금액이었기는 하나, 개척을 이루어내기엔 성경의 이야기를 빌자면 바구니에 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나 마찬가지였다.

+++++





+++++

“안유상 목사님께선 갈 데가 없으면 그냥 이 집을 예배당 삼아 그대로 개척하자고 하셨지만, 제가 ‘목사님, 목요일예배와 일요일에 드리는 대예배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방에서 대예배를 드립니까?’ 그랬죠. 하지만 백만 원으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리해낸 게 저 창고였어요” 하면서 권사님이 마당 건너편의 창고를 가리켰다. “중간에 벽이 있어서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는 한쪽은 이발소, 한쪽은 쌀가게였던 창고였는데 이발소 쪽 공간을 수리해서 예배당을 만들었지요.”

말하자면 권사님 댁의 반쪽짜리 이발소 창고가 금능리의 첫 교회인 셈이다. 그곳에서 드린 첫 예배의 날짜는 1991년 9월 27일이었다.

“그런데 얼마나 좁던지 앉아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고개가 아파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쌀가게까지 쓰자 하고 가운데 벽을 터서 창고 전체를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지금의 교회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 창고 교회에서 예배를 본 역사가 무려 16년이네요.”

그렇게 창고를 개조한 금능의 작은 개척교회로 부임해온 사역자들은 대부분 예비 목회자들이었다. 권사님이 수첩에 꼼꼼하게 적어온 것을 옮겨보면.

「1991년 11월 3일 부로 이상세 전도사님 부임하시다. 1992년 5월 5일 목사고시 합격하여 1993년 4월 노회 때 목사 안수 받고 8월 말 사임. 1993년 12월 15일 부로 김선형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시다. 1995년 4월 1일 목사고시 합격하여 1996년 노회 목사 안수 받고 1997년 5월 26일 부로 사임하시다. 1997년 12월 15일 부로 비양도 교회 시무하시던 김춘자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시다. 3개월 15일 만에 사임하시다. 1998년 4월 25일 부로 박영식 전도사님 부임하시고 광주신학대학 2학년 때 오

셔서 2년 동안 토요일에 오시고 주일 오후에 가시고」

권사님의 기록을 찬찬히 읽어보면 마치 교회가 어린 목회자들을 길러낸 듯한 느낌이다. 오시고 가시고. 베레이언덕 아래서 그들을 맞이하고 배웅했던 권사님의 모습이 그려진다. 실제로 권사님은 손수 돌을 날라다 집의 뒷뜰에 목회자들이 기거할 사택을 짓기도 했다. 내려앉은 지대를 메우는 데 경운기가 백 스무 번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실어다 메워도 안 돼서 15톤 차가 한 번 오가고, 또 리어카로 계속 돌을 실어다 날라가며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사택을 지었어요. 봄부터 시작해서 7월 초하룻날에 완공되었는데, 돌이야 수레로 나른다 쳐도 공사 자재를 살 돈이 없어서 전부 외상으로 가져다 지었지요. 그때가 이 집을 사느라 빚을 진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주머니에 돈 한 푼 안 남아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또 빚을 내서 덜컥 지었어요. 그러고는 이상세 전도사님께 ‘여기 와서 사실래요?’ 그랬죠. ‘좋지요’ 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저 금능교회의 땅도 우리 권사님이 사서 내놓은 땅이에요” 하고 김영아 할머니가 말했다. “참 이런 분이 없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박 권사 하면 다 좋은 사람, 이렇게 해. 믿는 마음이 그냥 드러나는 사람.”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 롱테이크로 찍은 필름을 빨리 돌려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는 게 있다. 만약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금능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시간들도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것은 박 권사님 댁 도로 건너편에 카메라를 세워놓으면 그 모든 장면들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1989년부터 2007년까지 베레이언덕 어귀의 박 권사님 댁 풍경을 고배속으로 재생시켜보면 그것은 아마도 뉘엿해지는 목요일 저녁 작은 방 창문의 불빛이 켜졌다

+++++



+++++

꺼지는 것을 시작으로, 어느 날부터는 밝고 환한 일요일마다 마당 건너편 창고 문이 활짝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며 계절이 지나가고, 잇을 만하면 한 번씩 커다란 짐 가방을 든 젊은이가 창고 앞 버스정류장에 뿌연 먼지 속에서 내려서고, 어느 대목에서는 돌을 잔뜩 실은 경운기가 대문을 셀 수 없이 드나들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는 집 바로 옆의 빈터에 공사차량들이 드나들면서 2층짜리 건물이 십자가 조형물과 함께 빠르게 올라오는 영상일 것이다.

카메라를 움직일 필요 없이 완결된 마지막 장면에 대해 권사님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아무것도 없이 제주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과수원도 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 옆에 산 땅은 하나님께 바치자 하고 결심했지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그게 얼른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들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교회 부지를 헌납하겠다는 결심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것은 하나뿐인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의 일이다. 아들을 잃자 권사님은 세상의 모든 집착이 사라졌다고 했다.

김영아 할머니가 말했다. “권사님네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초등학교 동창이라. 착한 아이였는데 서른둘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렇게 됐어. 장가도 못 가고...”

“이제 아무런 재미도 없고...” 하고 권사님이 말끝을 흐렸다. “그러니까 그제야 텅 빈 터를 바라보게 되더군요. 교회를 짓자 생각을 하니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권사님의 헌납으로 교회부지가 마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시 성안교회에서 건물을 건축해 주겠다고 나서서 마침내 지금의 금능교회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다. 권사님이



적어 온 수첩의 마지막 대목이다.

「2007년 7월 22일 기공예배 드리고 7월 23일부터 공사 시작하였다. 교회 건축은 성안교회에서 다 해주시다. 헌당예배는 2007년 12월 9일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말한다.

“골방이나 창고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를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항상 내 소원이었는데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날도 오는가 싶어서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평생에 소원이 그거였으니까요.”

+++++





+++++



박순임 권사님의 뜨거운 눈물과 함께 금능교회 건물이 세워진 지도 어느덧 십 년이 넘어섰다. 밤이면 베랭이언덕 어귀에 선 커다란 십자가 조형물이 흰 빛을 뿜으며 고요하게 잠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풍경도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지 오래다. 마을의 규모와 인구를 봐서 지금의 교회에서 더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근래 들어 마을에 신축 건물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교회를 제외한 주변의 풍경들만 빠르게 변하고 있다. 더불어 교회는 조금씩 늙어간다. 김영아 할머니도 한때는 금능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권사님의 말에 김영아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만간 교회에 한 번 들리겠다고 말한다. 딸의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화분들을 교회에 기증했던 이야기도 덧붙이며 김영아 할머니가 말한다. “내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유가 생기면 꼭 다시 나갈게요.”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권사님이 문득 작은 한숨 같은 이야기를 하나 꺼내었다. 그것은 이틀테면 교회사의 풍경에 가려진 집 뒤편의 이야기다.

“우리 아들에 관한 건데, 집 뒤편에 사택을 지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있을 당시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밤에 공부를 하느라 마루에 불을 켜놓고 있으면 제가 목사님 주무시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얼른 끄고 자라고 종용하곤 했어요. ‘그렇게 불빛이 환하게 쏘지면 목사님 주무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니’ 하면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들에게 ‘빨리 불 꺼라, 불 꺼라’ 하곤 했어요. 가끔 그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깊은 밤에 방문을 열고 나오면 집 옆에서 흘러들어온 십자가의 불빛이 마루를 어슴푸레 비추고 있고, 그럴 때면 권사님은 마루에 가만히 앉아 아들이 켜두었던 그때의 작은 불빛을 종종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한다. ▲IN

+++++





금능인게



사진으로 읽는 금능리

금능리 공동체문화를 읽다

글 | 양민숙 · 사진제공 | 금능리청년회, 김옥윤, 박용근



제주사람들은 참 힘든 시간을 버텼었다.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대표 유배지가 되었고, 중앙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점점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다. 또한 4·3사건은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독자적이고도 폐쇄적인 성향을 길게 만들었다. 1970년대 정부중심의 새마을운동이 제주까지 퍼졌을 때, 섬은 출렁거렸다. 온 섬이 ‘다 함께 잘 살아보세’의 강한 의지로 길이 넓혀지며 다듬어졌고, 주거문화도 바뀌어 갔다. 197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는 농촌이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으로 전개된 역사적 평가를 떠나, 그 당시 시골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었다.

금능리도 많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길이 확장되었고, 토지의 구획정리도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 함께 팔을 걷고 나섬에 따라 **마을 공동체**가 단단히 굳혀질 수 있는 계기 마련도 될 수 있었다. 제주는 그렇게 독특한 문화를 만들면서 제주만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 보통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제주가 아름답다고 한다. 하지만 오래오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름다운 것은 제주가 아니라, 제주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할 사진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80년대로 이어진 금능사람들의 공동체문화이다. 함께 했기에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아름다운 금능사람들의 이야기 안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본다.



해녀 공동체

해녀는 제주 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제주 해녀문화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전과 풍어를 위한 의식,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잠수기술과 책임감, 공동 작업을 통해 거둔 이익으로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활동 등이 문형유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주 모든 해녀들이 그랬지만, 금능해녀들도 금능리를 벗어나 다른 지방으로까지 물질을 하러 다녔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마을 해녀들끼리 서로를 보호해주었는데, 서로를 가족처럼 의지하며 작업을 하였다.



해녀 공동체



마을단합 체육대회



마을단합 체육대회



마을단합 체육대회

마을단합 체육대회

금능리는 오래 전부터 4개동(근로동, 협동동, 자조동, 자립동)으로 나뉘어 마을단합체육대회를 개최해 왔다. 보통 청·부녀회가 진행을 하였는데, 각 동에서는 선수를 선출하여 동 대항 경기를 치렀다. 지금은 추석 다음날 당일로 체육대회가 진행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추석날 예선전을 거치고, 다음날 결승전을 치르는 등 치열한 경연이 있었다. 이때면 타지에 나가 살고 있던 가족들도 오랜만에 고향에 모여 모두 한 마음이 된다. 자신이 속한 동 선수가 이기기를 응원했고, 음식은 동장 집에서 준비를 하여 함께 나눠먹으며 풍성한 추석을 보냈다.



금능리 장례모습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조사 간소화 운동이 활발해졌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의 경조사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였다. 보통 상조계를 만들어 큰일이 났을 때 서로 도와주었는데, **쌀제**, **그릇제** 등 다양한 형태의 상조계가 생겨났다. 제주는 섬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장례 절차도 다른 지방에 비해 독특했다. 제주에서는 매장을 하였는데, 그 산소까지 가는 상여행렬 역시 상조계의 몫이었다. 보통 상여행렬을 이끄는 사람은 여성들이었고, 관을 매고 가는 사람들은 마을의 건장한 남성들이 맡았고 그 뒤를 상주들이 따랐다. 산소까지 가는 길에는 마지막으로 고인의 집을 출발하여 고인이 다녔던 길을 따라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마을과의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였다.



금능리 장례모습



금능리 장례모습



금능리 장례모습



금능리 장례모습

독특한 제주 장례

- ① **입관** 정성스럽게 몸을 닦고 수의로 갈아입힌 다음 관에 넣는 절차다. 이때는 고인과 상주의 생년월일에 맞춰 철학관에 가서 날짜와 시간을 받고 진행된다. 제주에서만 이루어지는 독특한 관행 중 하나는 입관할 때 사둔택에서 팔죽을 쑤어온다는 것이다. 이는 상제와 친지들의 기력회복과 악귀침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 ② **성복제** 입관하고 난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례다. | ③ **일포제** 제주에서만 있는 일포는 발인 전날을 말한다. 이날은 고인을 기리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를 하러 오는 손님을 맞는 예식을 치른다. 또한 일포제가 치러지는데, 이 때 제물은 첫딸이 준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 ④ **검부조** 제주는 상주마다 따로 부조를 전한다. 그러다 보니 장례비용도 상주들이 같이 모여서 부담하게 된다. 독립성이 강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금능인

재릉초등학교 운동회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는 날은 명절 다음으로 학교 운동회였다. 매일 일을 하느라 바쁜 부모님들도 운동회 날만큼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음식을 준비하여 학교로 모인다. 부모님들은 이날,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한 율동을 구경하고 달리기를 비롯한 각종 경기에 열성으로 응원을 한다.

보통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응원점수까지 더해지다 보니 아이들보다 부모님들 응원의 열기가 더 뜨겁다. 가끔 난감할 때는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는 때이다. 어느 한 쪽도 편을 들어 줄 수가 없었다. 부모님도 와주어야 하는 경기도 있었다. 사람 찾거나 물건 찾기 등 함께 하는 경기에서는 경기장 트랙 안까지 쫓아가는 진풍경을 구경할 수도 있다.



운동회날의 하이라이트는 점심시간이다. 친한 가족들끼리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모아놓고 빙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다 보면 정이 반찬이 된다. 달리기를 잘한 아이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어쩌다 넘어져 골짜리를 한 아이에게는 따뜻한 격려로 힘을 실어준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로 키웠던 시대였다.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품앗이 육아·교육이 이루어졌다. 학교 문턱이 높았던 시절, 최고의 사치를 부리고 정성껏 만든 도시락으로 아이들의 유년시절을 채워주었던 부모님들의 정성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금능인게



금능 선전처 도로공사

넓게 펼쳐진 금능 선진터 앞으로 금능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마을길을 만들기 위해 자갈을 고르고 그 경계의 돌담을 쌓고 있다. 보통 마을의 공동 작업은 **근로의 의무**라 하여, 가구당 한 명씩 동원을 하는데 남·녀 구분이 없었다. 사진을 보면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의 모습도 보이고 엄마를 따라 나온 아이의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동원이 되면 밀가루를 배급받기도 하였는데, 지난 했던 시절 밀가루는 중요한 식량이 되었다.



함께 간직하고 있는 추억이 있으면 따뜻해진다. 우연히 만나도 이야깃거리가 된다.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통해 우리는 한 단계 더 가까워진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사·인**

※ 사진제공을 해 주신 금능리청년회, 김옥윤님, 박용근님 감사드립니다.







80대 리민 김옥운



80대 리민 김순열



80대 리민 문영남



#1. 김옥운(80대)의 1940년대 음식이야기

지금 바당에 내려가민 하영 보이는 쪽쪽보말을 그때는 원보말이랜 불라신디, 그거 잡아당 삶앙 먹어났주. 집에 큰일 이서낭 고향 나민 심방이 지금은 팔 뿌리주만은 그때는 팔 대신 원보말을 막 뿌려나서. 그때는 팔이 오죽 귀할 때라. 귀한 팔을 뿌리지 못해부 난 대신 원보말을 뿌려신디 그거 주우려 바당에 하영 다냈주.

집집마다 사는 차이가 있어서 먹거리도 많이 차이가 났었주. 가난한 집은 그땐 보리도 막 귀해신디 보리 찢어나민 등게?루가 나오난 그걸로 떡 만들엉 먹고, 얼마나 먹을게 어서시문 그걸 먹을거라랜 경 먹어나신지. 그거 먹으민 똥구멍 막아정 똥도 못 누 어나서.

바당에 총뭍 해당 범벅해서 먹었고 툷 해당 툷 범벅해서 먹었고 허곰 나신 집은 감저범벅은 먹어나신디, 감저범벅은 막 양반이라 낫주. 툷범벅은 경해도 괜찮아신디 총뭍 범벅은 먹으민 막 몸이 부어나서. 경해도 먹을거 어시난 혈 수 어시 먹어나서. 반찬이라 야 김치에 자리젓이 다였주. 집집마다 먹는 것이 사는 정도에 따라 완전 달라신디, 등게?루 범벅만 먹는 집이 이서났고, 허곰 살 암덴 호 집은 이것저것 만들엉 먹기도 허곡 해서. 김이술을 만들엉 먹는 집도 이서나신디, 김이술 만들젠 허민 비양도 강 김이 잡 아왕 만들어났주. 그때 먹어난 것들 허랜 허민 설움만 나. 지금 경 살랜 허민 아무도 살 사름 어실거라.



#2. 김순열(80대)의 1950년대 음식이야기

어릴 때 삼점이 이서난거 다향. 그때 비가사탕 하나 상점에 강 사문 껌처럼 늘리면서 오래오래 아끼멍 먹어난 기억이 이서. 먹거 리랜 허문 지금에서 만들어진 거 사당 데왕만 먹으민 되어도, 그땐 산으로 바당으로 다 이녁 몸 노력하지 안허민 굶을 때라나서. 바당에 강 총퍼래 해당 넘빼 노민 퍼래넘빼국 되고, 서대 노민 서대퍼래국 되고 그건 막 고급이었주. 경해도 바당이 가차우난 바 당에 강 하근거 다 잡아당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어서. 자리 날 때민 자리젓 담았당 총뭍이나 미역새나 넘피 낭 끓이문 자리젓국 이 되어신디 그것도 얼마나 맛좋게 먹어나신디, 지금 사름들 먹으랜 허민 먹어질 건가.

물릇이랜 호게 이서 나신디 옷뜨리에선 그걸 캐당 풀레 다냈주. 우리 해변에선 물릇 캐레 잘 안 다니난, 바당에서 난 넘피영 바 꾸기도 허곡, 목화 솜 줘서 물릇이영 바꾸기도 허어나서. 그 물릇 허당 코콜하게 씻엉 향아리에 담앙 향아리에 흙 벌랑 폭 고으 민 빨갈게 생엿처럼 엿이 되어신디, 그걸 얼마나 맛좋게 먹어나신디. 그때난 맛좋아실 테주. 바당에 강 김이 잡아당 막 뽕상 국이





영 죽도 쭈어 먹어나서. 그거 끓이젠 흑민 불 붙여야 되는데 그땐 성냥이 막 귀할 때난 저녁이 동네 다니당 보민 연기 나는 집 보
이문 말뚝 봉가당 그 집이강 불 붙여당 저녁도 행 먹어났주. 역새 빙빙 감양 뉘똥당 그디에 불 붙이당 지더났고 불씨도 서로 품
앗이 해나서.

#3. 문영남(60대)의 1960년대 음식이야기

장마철이 되기 전에 보리를 장만했는데, 탈곡이 끝나고 나면 밭에 보리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이삭을 안 주우면 밥을 안 주
겠다고 해서 형님들하고 부지런히 보리아삭을 주었던 기억이 난다. 주운 이삭으로 미숫가루를 만들었는데, 들에 있는 탈을 타다
가 미숫가루에 비벼 먹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치킨처럼 그 시절 최고의 음식이었다. 미숫가루 하나만 있으면 밥에도 비벼 먹고,
물에 개어서 먹고 어린 시절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든든한 간식이었다.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함께 잔치를 치렀는데, 마을 아이들한테 잔치는 어쩌다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쁜 날이었다. 잔치 때가 되면 보리에 팔 섞어서 밥을 하고, 고구마튀김 2개, 돼지고기 2점, 순대, 간장, 김치 정도 나왔
는데, 신부상에만 보리 대신 쌀로 밥을 해서 올렸다. 그때만 해도 잔치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남자들이 많이 할 때였다. 고구마튀
김도 솔뚜껑 얹어서 돼지기름에 지져서 남자들이 만들었고, 순대도 기본 재료들을 여자들이 만들어 주면 내장에 그 재료를 담
고 찌는 것을 남자들이 맡아서 했다. 제삿날 멧밥은 직접 밭에서 간 밭 산디로 했는데, 제사 끝나고 친지들 밥 나눠 먹을 때는 두
숟가락 정도로 나눠 먹기도 했다. 풍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때였다. 사과 하나도 서른 조각으로 나누어 먹었다. 그래도 불평하
는 사람은 없었다. 당연히 인원수만큼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나 혼자 배부르기보다 모자라도 함께 나누
어 먹는 것이 제주 음식 문화였다.

#4. 송문철(50대)의 1970년대 음식이야기

봄이면 들에 나가 찔레꽃 새순을 꺾어서 껌질을 벗겨 먹었다. 뽕이도 먹고 삼동도 따고, 불레도 따 먹었다. 집에 붙어 있질 않았다.
시간 될 때마다 들로 바다로 자연 먹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놀이었다. 청미래덩굴(멜랑구) 순한 것도 꺾어서 먹었고, 지금
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이 그 시절에는 훌륭한 우리의 먹거리였다.



50대 리민 송문철



50대 리민 홍준희



40대 리민 김성수



금능인게



40대 리민 양민숙



30대 리민 이윤영



30대 리민 강수희



아까 잔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때는 두부도 나왔던 것 같다. 잔치를 하려면 집에 꼭 돼지 한 마리씩 키웠는데, 보통 한창(60kg) 정도 되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치렀다. 오는 손님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돼지고기 분배를 잘 해야만 했다. 얇게 썰는 것도 기술이었다. 그것을 도감이 하였는데 그때는 도감이 대장이었다.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도감을 맡아서 했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도감을 맡아서 하는 것 같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돼지고기라고 해도 제대로 삶지 않아서 피가 보일 정도로 빨간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썰어서 나왔다. 돼지고기 한 점이 귀해서 빨간 고기도 다 먹던데, 나는 도저히 먹지를 못했다. 제사 때는 지금과 비슷했는데, 과일이 세 가지가 올라갔다. 보통 땡유지, 사과, 배가 올라갔는데 그것도 가난한 집은 올릴 수가 없었다. 지금은 비슷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때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한다. 살기가 많이 좋아졌다.



#5. 홍준희(50대)의 1970년대 음식이야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십년 이십년 삼십년의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렸을 때도 다 비슷했던 것 같다. 음식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어머니가 해 주시는 음식으로 계속 대를 내려가는 것이기에, 시간이 흘러도 먹는 음식의 차이는 별반 없는 것 같다. 기억에 나는 것은 잔치 때 돼지고기를 신문에 싸서 밥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나는 그 신문지 냄새가 묻어 있는 돼지고기가 맛보다도 냄새가 더 좋았다. 먹기 전에 한참을 냄새 맡고는 했다. 나중에는 신문지에서 책으로 바뀌었다. 그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나눠주기 위하여 두 점씩 신문에 싸서 공평하게 밥 위에 올려놓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우리 때는 잔치 음식 중에 육개장도 있었다. 들에서 딴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넣고 푹 끓여서 만들었는데, 돼지를 잡는 잔치 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또 빙떡도 있었고, 집집마다 시루에서 콩나물을 키웠는데 콩나물 반찬도 올라갔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 서 잔치 음식도 가짓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6. 김성수(40대)의 1980년대 음식이야기

친척집에 제사가 있으면 식구들이 모두 갔다. 지금은 제사가 간소화 되어서 집안 식구들만 제를 지내는 편인데, 그때는 제삿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제삿집에 갔다. 아무리 졸려도 파제 때까지 잠을 자지 않았고, 혹시 잠이 들면 가족들이 억지로 깨워서 밥을





먹이곤 했다.

잔치 때는 커다란 가마솥에 밥을 했기 때문에 솥 바닥에는 항상 누룽지가 있었다. 어른들은 누룽지를 굽어서 설탕을 뿌려 우리 들한테 나눠주었는데, 그것을 꼭꼭 눌러 주먹밥처럼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이 난다. 겨울이 되면 어머니께서 무와 콩가루를 넣은 무콩국을 끓여 주셨는데,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 놀았기 때문에 허기가 반찬이었는지, 무엇을 먹 어도 맛있던 시절이었다.

#7. 양민숙(40대)의 1980년대 음식이야기

몇 살 때였는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시리마개'에 대한 기억이 있다. 제사 때면 떡을 해서 떡을 찌는데, 솥뚜껑 옆으로 김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해서 시리마개를 만들어서 붙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운 불에 자연스럽게 구워지면 나중에 그 것을 떼어 과자처럼 먹었다. 떡을 찌 때마다 나는 그 옆을 지켰다. 혹시 시리마개를 다른 아이가 먹을까봐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 한 번은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메주를 만들기 위해, 삶은 콩을 넣은 비닐마대에 올라가서 밟았던 적도 있다. 친구 어머니 몰래 삶은 콩을 몰래 집어 먹으며 밟았었는데, 그 때의 느낌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골고루 잘 밟아야지 메주를 만들 때 잘 뭉쳐진다고 해서 있는 힘껏 밟았던 것 같다.

열 살 무렵 라면이 나왔다. 보험영업을 하셨던 어머니가 상품으로 라면 한 박스를 받아 온 적이 있다. 어머니가 라면 하나를 끓여 주셔서 세 식구가 같이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신세계를 만난 느낌이었다. 하루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장롱 위에 숨겨놓은 라 면박스를 발판을 깔아 꺼내고,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냥 물통에 넣으면 되는 줄 알았고, 큰 물통에 하나 둘 넣다 보니 한 박 스를 다 넣고 말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먹었던 라면 맛이 나지 않아 그냥 놔 두고 놀러 가 버렸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보니 생 라면이 물에 퐁퐁 불어 물통 밖으로 넘쳐흘러 있었고, 그날 어머니한테 빗자루로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에서 대담을 나누다



#8. 이운영(30대)의 1990년대 음식이야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주 오래전 음식부터 라면까지 나왔다. 지금도 우리 밥상에서 만나는 음식들 빼고,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은 이미 다 나온 것 같다. 시간은 흐르지만, 음식의 변화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다.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금능시계밥상’ 등을 만들어 상품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9. 강수희(30대)의 2018년 음식이야기

금능리에서 산 지 몇 년 되지 않았다. 얼마 전에 금능 마을 분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 파치를 이용해 피클을 만들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주변 지인들한테 나누어 주었는데 인기가 좋았다. 예로부터 내려온 음식도 좋지만, 지금 금능리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중심으로 먹거리 개발을 하면 금능리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그 뿌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대담>은 우리의 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없었으면 영원히 몰랐을 음식도 있었다. 이야기 속에 시대별로 아주 조금씩 금능의 음식문화가 변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시대적 상황과 맞닿은 것이다. 결국 먹거리는 삶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음식들 중에서 현재 금능을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A·IN](#)

금능대담에서 나온 음식 용어 및 레시피

- **참돔(툷,고구마)범벅** | 등게가루에 참돔(툷,고구마)을 섞어서 물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다가 소금간을 함.
- **강이술** | 바닷게를 사용, 굵게 빻은 후 걸러서 나온 물로 오메기떡을 만들고 술을 만들.
- **섬나물 김치** | 비양도에 나는 나물로 담근 김치, 소금물 대신 바닷물로 절여서 사용
- **순대** | 돼지 피와 돼지 내장을 사용, 돼지 피는 시간이 지나면 얼림.

얼린 피는 사이다를 넣으면 풀리게 됨.

내장은 밀가루로 깨끗하게 씻음.

쌀을 불리고 마늘, 부추 등의 부재료를 잘게 썰어 내장에 깔대기를 이용해 담음.

가득 담으면 찜 때 터질 수 있어서 60~70% 정도 담아서 찜.

tip 잔치 때 돼지를 잡으면 돼지털을 꼭 펜치를 이용하여 뽑았다. 돼지털을 팔아 그 돈으로 술을 사 먹기도 하였단다. 이 돼지털은 술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술은 이발소에서 머리카락 터는 용도로 이용이 되었다.





금능인

금 능 리 | 자생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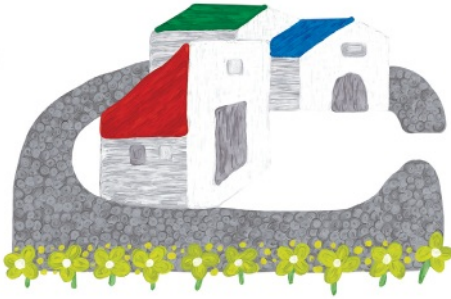
풍물놀이로 봉사하고 화합하는 금능리 풍물패

글 | 김순일 · 사진 | 한명희





금능인게



“낮에 발일과 물질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저녁시간에 흥겨운 장단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풍물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농사를 시작할 때나 추수를 할 때 피로를 달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놀던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로 풍물 굿이나 농악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옛날 사람들은 풍물놀이가 시작되면 깃발, 의상, 악기 등을 갖추고 마을을 돌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고 한다.

이런 풍물놀이를 즐기는 풍물패가 금능리에도 있다. 금능리의 부녀회원들이 모여서 2016년 8월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27명의 회원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금능리 풍물패는 부녀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마을 행사에 공연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부녀회 산하 모임으로 만들어져서 부녀회의 부회장이 풍물패의 회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을 구성한 이유는 부녀회와 풍물패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마을의 행사에 풍물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는 이유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개최되는 경로잔치와 체육대회에 참여해서 공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능 원담축제, 한수위 수산물 대축제 등 마을을 넘어 한림읍과 제주도를 대표하는 행사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금능리 풍물패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이 되면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해 진다. 풍물패의 정기 연습시간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이기 때문이다. 풍물놀이는 화합과 조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지도해주는 선생님 없이는 연습조차 진행할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 몰랐다. 기본적으로 장구를 통해서 국악과 풍물놀이의 장단을 익혀야 한다. 그리고 풍물 장단이 익숙해지면 다양한 개인악기를 연주하게 된다. 금능리 풍물패에는 풍물놀이를 위한 악기와 의상을 모두 갖



추고 있고,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속적으로 강습을 받으며 실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부녀자로 구성된 풍물패에게는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삼도설장구’를 연습하고 있다. 삼도설장구는 정교하고 치밀한 예술성이 돋보이는 장구가락으로 이 삼도설장구가 금능리 풍물패에서 곧 완성될 것이고, 금능리 풍물패는 마을을 넘어 한림읍과 제주도의 대표 풍물패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홍준희 부녀회장은 “낮에 발일과 물질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저녁시간에 풍물놀이의 흥겨운 장단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풍물패에는 부녀회 회원뿐 아니라 금능리에 거주하는 리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음악과 놀이, 풍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가입해서 함께 즐겨요. 우리 금능리 풍물패가 부녀회를 넘어서 마을리민들이 결속하는 좋은 구심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한다. A-IN



금능인

금 능 리 | 자생단체

금능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금능리 해녀회

글·사진 | 김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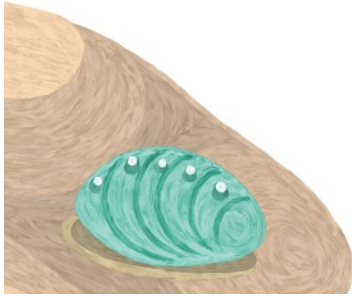




금능인게



“금능리 해녀에 도전해 보세요.
선배해녀들과 일하면서 하나씩 배우고,
선배해녀들이 해녀가 될 수 있겠다고 인정하면
금능리 해녀가 될 수 있어요.”



제주 해녀의 유래를 찾아보면 서기 1105년 고려 숙종 때 문헌에서도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제주 해녀는 900년 넘는 오랜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랜 기간 제주 해안마을 부녀자들은 대부분 해녀였고, 해녀는 긴 숨을 참고 깊은 바닷속을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서 목숨까지 담보로 걸어야 하는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다. 우리 금능리에도 200명의 해녀가 있지만 절반 이상인 100여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60세 이상도 50명 이상 된다. 이렇게 힘들게 물질하며 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온 해녀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다. 금능리 해녀회는 어촌계 산하 조직으로 현재 물질을 하고 있는 63명의 해녀들로만 회원을 구성하여 지난해 2017년 8월에 결성되었다. 해녀회는 주로 50~60대의 연령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80대 최고령 해녀도 있다. 최근에는 30~40대 해녀들이 신규로 가입해서 금능리 해녀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금능리 해녀회는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소라와 전복, 해삼, 오분자기, 문어 등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하고, 소라의 금어기(禁漁期)인 6월부터 8월까지의 성게와 보말 등을 채취한다. 또 채취작업 뿐 아니라 불가사리와 같은 해적생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물론이고 툿 밭의 바당검질 작업과 해양쓰레기 정화작업까지 금능리 해녀들은 많은 일들을 한다. 소라의 금어기가 시작되면 금능리 해녀들은 육지의 해안으로 원정 물질을 간다. 안면도, 태안, 거제도 지역에는 해산물이 풍부하지만 해녀가 없어서 채취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런 곳으로 1~2개월 원정물질을 다녀오면 금어기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고령의 해녀들은 원정물질을 가기 어렵다. 최근에 해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다지킴활동’이다. 금능리에는 2014년부터 바다에 종패(어종의 씨앗)를 방류하고, 일정기간 관리

한 후에 수확하는 ‘바다목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능리 어촌계는 ‘잡는 어업’에서 ‘키우는 어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밤이 되면 스쿠버다이빙 장비나 스노클링 장비를 갖추고 바다목장에 침입하여 전복이나 해삼, 소라 등을 채취하는 해적활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해녀회에서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바다지킴활동을 하고 있다. 여자의 몸으로 깜깜한 밤에 미끄러운 바다바위를 넘어다니며 바다를 지키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금능리 해녀들은 우리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이로 바다목장에 침입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적활동은 꼭 삼가해야 한다.

제주도 해녀는 2015년 11월 우리나라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고, 2016년 11월 제주 해녀문화 Culture of Jeju Haenyeo가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세계적으로도 해녀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2017년 6월 해녀문화를 보존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서 고령해녀와 신규해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해녀들에게는 해녀증이 발급되어 의료 및 문화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우리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금능리 해녀에 도전해 보세요. 물론 금능리 해녀는 본인이 되고 싶다고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금능리 어촌계와 수협에 가입하고, 바다에서 선배해녀들과 일하면서 하나씩 배우고, 선배해녀들이 해녀가 될 수 있겠다고 인정하면 금능리 해녀가 될 수 있어요.”라고 금능리 해녀회 김영아 회장은 이렇게 젊은 신규 해녀들을 모집하고 있다. “또 금능리 해녀회의 수익금으로 회원들과 여행을 갈 수 있을 만큼 금능리 해녀들의 소득창출과 복지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녀회의 목표까지 더했다. A-IN



금능인

{ 동네 형들과 함께 하는 햇불클럽 }

글·사진 | 강수희

금
능
리
역
사
이
야
기



스승의 날이었다. 취재 전까지 햇불클럽의 존재조차 몰랐으니, 햇불클럽의 문턱화 회장을 만나기로 한 날이 스승의 날이었던 것은 100% 우연이었다. 햇불클럽은 지금으로 치면 동네 형들과 함께하는 방과 후 교실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972년, 금능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던 기특한(?) 금능의 청년들이 후배 양성을 목적으로 결성했던 햇불클럽! 자발적인 모임이었지만 너도 나도 가난한 시절이었으니 당연히 물자는 부족했을 것이다.

강수희 각 학년마다 각각 다른 집에서 수업을 했으면 시설이 열악했겠네요?

문덕화 공부방이 4, 5군데였으니까 각 공부방마다 칠판이 필요했지. 처음엔 사과상자에 페인트칠 해서 칠판으로 만들어 썼는데, 1년 후에 학부형들이 칠판 7개를 기증해주셔서 잘 썼지.

강수희 햇불클럽 공부방 운영비가 지원이 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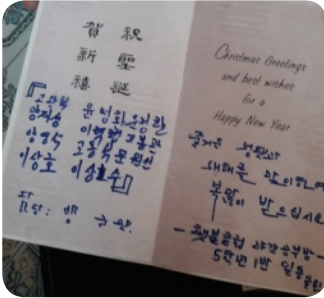
문덕화 공부방 운영비는 회원들 자비로 충당했거든. 그래서 회원들이 주말에 일하고 일당 받은 걸로 회비 내고, 그걸로 운영하고, 다들 많이 힘들었어. 그런 적은 있었어. 재릉초등학교에서 갑자기 금능 애들이 갑자기 시험 성적이 좋아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나, 해서 햇불클럽을 알게 되신 거지. 그래서 당시 재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나를 불렀어. 표창장도 받고, 부상으로 분필 다섯박스를 주셨지.

강수희 마을에 대한 애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 같은데, 햇불클럽을 처음 결성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문덕화 고등학교 졸업 하고 육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연락이 왔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후배 양성을 해보자고. 이미 햇불클럽을 결성해 놓은 상태였더라고. 나는 그 때 햇불클럽 회장을 맡게 됐지. 그 때가 72년도니까... 스무둘이었나? 회원은 금능 청년들이랑 고등학생들까지 20명이 넘었어.

강수희 지금으로 치면 '방과 후 교실' 이나 '그룹과외' 개념인데, 전과목을 다 가르치신 거예요?

문덕화 그렇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 담당 회원들이 전과로 공부해 와서 가르쳐주고, 매월 시험도 봤어. 리사무소 원, 꿈자룡 도서관에 있는 등사지로 프린트 해가지고. 시험 잘 본 애들은 상장도 주고 상품도 줬어. 공부 뿐 아니라 좌측통행 같은 준법정신부터, 손발톱 위생과 청결 검사도 하고, 목의 때 검사도 했지. 그 때는 여자애들도 손톱 밀이 시켜줬거든. 마을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 같은 예의범절도 가르쳤고.





금능인게



강수희 전반적인 인성교육까지 다 하신 거네요?

문덕화 그렇지. 일요일마다 마을 골목 청소도 했어. 특히 설이나 추석에는 다같이 모여서 용천수 나오는 아랫물부터 골목 구석구석 청소했어. 청소 다 하고 난 다음엔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리어카가 없어서 엄청 고생했지.

강수희 청년들이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어른들이 좋아하셨겠어요.

문덕화 좋아했주게. 우리 딸도 시켜달라. 아들도 시켜달라.

햇불클럽은 단순한 공부방 개념이 아닌 멀티 에듀케이션의 살아있는 현장이었다. 이쯤 되면, 그 역사적인 공간이 아직 금능에 남아있을까, 궁금했다. 몇 해전부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집, 건물들이 생겨나는 금능이니까.

강수희 공부하는 집은 어디였나요?

문덕화 여섯반 정도 됐으니까. 3, 4, 5학년 1반씩, 6학년이 2반인가? 개인집을 빌려가지고 학년별로 따로 시켰주게. 밖거리를 빌리던지, 방이 남는 집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강수희 공부했던 집은 아직 남아 있나요?

문덕화 남아있지! 박한철 집도 있었고, 이상용씨. 이상훈. 양병숙이... 여러 군데 해놓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나는 양병숙 집에서 3학년 가르쳤지. 덩장 하는 아이 이름 뭐? 그 집에서도 해놔주게. 김정옥네 집. 이따가 한번 가자. 지금은 밖거리여서 창고로 쓰거나 하겠지만.

이렇게 순전히 마을 청년들의 열정으로 유지되던 햇불클럽은 5년 후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회원들의 군입대와 직장 생활, 결혼 등의 이유로 조출한 해체식도 없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된 것이다. 열정만으로 5년의 시간을 버텨온 것이 오히려 기적이었을 것이다. 햇불클럽의 해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문덕화 씨의 눈에는 아쉬움과 고마움, 추억이 스쳤다.

강수희 햇불클럽을 동생들이 이어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끊겼을까요?

문덕화 청년회 차원에서 이어가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강제성을 펼 수가 있으니까 부담을 줄 수는 없었지. 햇불클

럽은 자발적인 조직이었으니까.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햇불클럽을 계속 하자고 하는 친구도 있긴 했어. 그걸 연계하지 못한 게 미안하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무엇보다 고마운 분들은 후원해주셨던 학부모님들, 회원들이었어.

강수희 햇불클럽에 대해 기억나는 재밌는 일은 없으셨나요?

문덕화 제주일보에 하는 ‘햇불클럽’ 이름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했는데, 이름이 ‘햇불클럽’으로 나간 적이 있었어. 햇불이 줄지에 햇불이 됐지. 그리고 내가 금능에서 방위로 초소에서 군복무를 할 때었는데, 양복만이가 아이들이랑 찾아왔더라고.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카드 써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 집에 있는데, 보러 갈테야?

햇불클럽 문덕화 회장을 따라 마을 길로 들어섰다. 성아시 식당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 철호네농장 골목길 중간 즈음 정갈한 마당의 집 밖거리, 산책길에 항상 발길이 멈췄던 낮은 대문 집 문간방, 예쁜 독채 펜션이 있는 골목길 끝에 있는 주황색 지붕의 밖거리. 40여년 전, 페인트 칠한 사과박스를 칠판으로 공부하던 금능의 꼬마들과 청년들이 보이는 듯 했다. 햇불클럽 공부방을 내주었던 집들의 주인은 바뀌거나, 돌아가셨거나 혹은 아예 집이 사라지기도 했다. 문덕화 회장은 마을길을 다니는 내내 그 점을 아쉬워했다.

문덕화 넙팡, 빌레, 기남이 동산, 새동네, 연두까름. 금능에 예쁜 이름이 많았거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 그게 너무 아쉬워. 지금 CU편의점이 있는 자리, 거기 이름이 뭔지 알아? 비라비. 장수코지는 알지? 소가 먹는 물이 있다고 하여 물통 동네도 있고.

문덕화 회장과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문득 2018 햇불클럽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봤다. 물론 2018 햇불클럽이 결성된다면 46년 전 햇불클럽 회원들 없이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 1972 햇불클럽의 생생한 고증으로 만들어진 2018 햇불클럽의 금능지도 머지 않아, 넙팡과 기남이 동산, 비라비, 물통동네라는 지명이 꼭 들어가야 진짜 금능 지도를 신/구 햇불클럽과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A-IN



{ 사방조림공사로 만들어진 소나무 숲 }

글·사진 | 김순일

금
능
리
역
사
이
야
기

을창한 소나무 숲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랑이자 유산

금능리와 협재리는 ‘아름다운 모래 해변’으로 제주에서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한 곳이다. 물이 빠지는 간조가 되면 새하얀 색의 드넓은 모래밭이 드러나고, 만조가 되면 비취색의 아름다운 바다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우리의 좋은 자원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모래가 우리의 삶을 척박하게 만들었다. 겨울이 되면 고운 바다모래들이 거센 북서풍에 실려 해안에서 3km이상 날아가 인근의 농지를 모래벌판으로 만들어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을 주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모래를 막자’는 사방조림공사(砂防造林工事)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정부시책으로 진행되었고, 담당 도청사무관이 파견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다. 1954년부터 금능리와 협재리를 지구별로 분리하여 착공하였고, 6년간 진행 된 이 사업은 해마다 나무심기에 적합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고, 1960년 5월에 완공되어 총 280ha의 땅에 소나무 숲을 조성하였다.

이 사방조림공사에는 금능리와 협재리 주민뿐 아니라 한림읍 전체 주민들이 동원되었다. 하루 200원의 일당을 받았고, 어린 소나무 묘목을 심기 위해서 모래벌판에 일정 간격으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다시 흙을 넣고 소나무 묘목을 심었다. 소나무 묘목을 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어린 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새나 기장대를 세워 바람을 막아 주었고, 비가 안올때는 일일이 물을 주기도 했으며, 소나무 묘목을 심은 지역에서는 말과 소를 방목할 수 없었다. 또 나무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대나무 집계를 직접 만들어 술나방 유충인 송충이를 잡았고, 소나무 껍질이나 낙엽에서 겨울을 나는 송충이 유충과 알을 퇴치하기 위해서 나무마다 가마니를 중간에 덮어 송충이 알들이 가마니에 붙게하여 이른 봄에 태우기도 했다.

사방조림공사가 끝난지 58년이 지난 지금, 선배들이 땀 흘려 조성한 소나무 숲의 25%는 대기업이 리조트와 골프장으로 개발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많은 소나무들이 곳곳에서 베어져서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선배들이 조성한 소나무 숲을 지키고 가꾸어서 제주도와 금능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다 뿐만 아니라 숲의 아름다움도 경험하게 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IN



금능인게



금
능
리
역
사
이
야
기

{ 열대요란 熱帶擾亂 }

글·사진 | 홍임정

적도 부근의 열대 해상에서는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바람이 갑자기 시작되었다가 갑자기 멈추는 짧은 돌풍이 자주 발생한다. 스콜 Squall이라고도 부르는 강한 소낙성 비를 동반한 이 국지성 돌풍들은 수렴기류에 따라 적도로 이동하고, 여기서 편동풍의 수평파동에 의해 하나로 합쳐져 큰 소용돌이가 되는데 이것이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 Tropical Disturbance, 熱帶擾亂이다. 열대요란이 조직화되면 열대 저기압으로 발전해, 저기압의 중심부에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여 강한 회전력과 원심력이 생기면서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고,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바람이 발달하여 최대풍속 33m/s에 이르면 태풍이 된다. '사방의 바람을 빙빙 돌리면서 불어온다' 하여 옛날에는 구풍 具風이라고도 불렀다.

금능마을의 할머니들은 4·3과 6·25의 순서를 혼동하고 있었다. "일본 전장 끝날 미국 이겼저 한 다음에 육이오 난."

"육이오 끝나고 사삼 나지 안해샤."

한국전쟁도, 제주 4·3도 할머니들에겐 바람에 실려 온 풍문에 가까웠다. 한국전쟁은 어쨌거나 바다 건너의 일이었고, 할머니들이 기억하고 있는 마을의 4·3 피해자는 단 세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도 틀린 기억으로 평화공원의 각명비에 새겨진 금능리의 희생자 수는 열네 명이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동쪽드레가 많이 죽었젠 험디다. 성읍리는 양 제삿날이 동네잔치나 마찬가지로 험디다."

다른 할머니가 말했다. "북촌이라는 덴 여자가 이장이라고 소문났어. 마을 사람들 다 붙잡아당 죽여부난 이장할 사람 어시난 여자가 이장했주."

"어디어디는 바닷가라도 폭도들이라 다 붙잡아 죽이고. 그런데 금능은 별로 안 죽었어. 세 사람 밖에 안 죽었을 거라. 경

허여 뭐 고를 말이 어서, 금능에는."

"여기는 양병직이가 국회의원이란 하영 덕 봤수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맞수다. 우리 마을은 병직이 삼촌이 국회의원으로 이시난." "사람이 그렇게 똑똑허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초대 국회의원이 된 거라."

그러자 한 할머니가 "우리 양칩."이라고 말했다.

"우리 양칩이란 국회의원 나오젠 허난 돈 없어노난 우리 양칩이 집집마다 돈 내와서 그걸로 운동하지 안해샤. 우리 집도 이 사람 찍어 줘서 하명 이녀 운동 했어."

할머니들은 마을에 피해가 적었던 이유를 '병직이 삼촌'에서 찾고 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몇몇 증언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 증언자에 의하면 금능리는 '양병직 국회의원으로 인해 깨끗이 보장된 마을'이었다.

금능리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기록된 양병직 梁秉直, 1906-1975은 일제강점기에 구장을 역임하고, 광복 후에는 우익 청년단체인 대동청년단의 제주도지부 한림면단장으로 활동하다가 1948년 5·10총선거에 북제주군 을구로 출마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러나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하며 봉기를 일으킨 무장대의 선거 방해로 인해 투표자수 미달로 무효가 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무장대 편에서 보자면 단독선거 저지의 뜻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제주의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3개월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양병직은 이듬해에 치러진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 5,766표로 당



선되어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대동청년단 한림면단장이었던 양병직이 마을 청년들을 이끌어 금능리는 우익 성향이 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좌익 운동을 하던 청년들도 꽤 있었다고 할머니들은 말했다.

“그때 우린 어리닝 잘 모르는데 오빠 오빠 행 따라대기다 보면 빠라 어디 강 뿌렸져 하는 말들을 7라.”

“다 우리 오빠영 친군디 낮엔 잠잠히 있어도 밤에는 산엘 다녔어. 밤에 횃불 쏜 서로 연락허멍.”

“그러다 이북청년 님은 경찰들이 박행구 죽이난 그걸 보고 다들 일본으로 바짝 뛰어부렀어. 지네들끼리 연락행 화닥닥들. 어머이랑 각시까지 문짝 돌아간. 그때 일본으로 많이 갔어.”

“산에 걸어진 사람들은 다 갔지. 안 갔으면 많이들 죽어실거라. 박행구처럼.”

“그때는 손가락질만 허면 쏘버리니까. 박행구도 누가 폭도라고 손가락질 허영 경찰들이 왕 죽인거로게.”

“그때 우린 행구 오빠 하고 친해 땡겨도 폭도란 내용은 모르주게. 폭도란 죽였져 허난 죽었심가 해주기게. 모르주게.”

사망 당시 22세¹⁾로 부인과 두 명의 딸을 두고 있던 박행구^{朴行九, 1927-1948}는 금능리 최초의 희생자이자 우익에 의해 목숨을 잃은 유일한 희생자로, 사건이 발생한 때는 4·3무장봉기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이 엮은 『4·3은 말한다』²⁾ 전예원, 1994에서는 금능리의 박행구 사건을 조천리의 김용철^{金用哲, 당시 21세}, 영락리의 양은하^{梁銀河, 당시 27세}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3월 한 달 사이에 벌어진 3건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당시 4·3 발생 직전의 정황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 그 내용이 책에 비교적 소상히 나와 있다.

책에 의하면 사건 전날 금능리에서는 선박 진수식이 있었다고 한다. 진수식이 끝나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평소에 미군정이나 우익집단을 곧잘 비판하던 박행구가 사람들과 함께 사

상논쟁을 벌이다가 흥분해서 몇몇 특정 인물을 가리켜 ‘민족을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라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의 언동은 경찰에 즉각 알려졌고, 다음날 오전 스무 명 가량의 경찰과 서북청년단원들을 태운 트럭이 마을 입구에 나타나 초입에 있던 박행구의 집을 급습했다. 밥을 먹다가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박행구는 곧장 담을 뛰어넘어 이웃집 고팡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지만 곧 붙잡혀 그 자리에서 곧봉과 총 개머리판으로 구타당하기 시작해 마을길에 끌려나왔을 때에는 이미 유혈이 낭자한 상태였다.

“덕화 아방네 고팡에 들어가 어디 숨을 데 어시난 멍석 세와진 뒤에 숨언. 경찰이 총 갖고 들어와 덕화 아방은 난 모르쿠다 영영 하느디 멍석 아래로 행구 발이 봐전 게. 그 길로 붙잡아 나간. 덕화 아방은 따라가진 안 허고 붙잡아 나가는 것만 봤덴. 경찰 따라가당 큰일 나지. 편들면 큰일 나. 말만 헛끔 잘못해도 빨갱이랜 붙잡아간 게. 경허난 행구 끌려갈 때도 동네 사람들이 멀리 선진터에서 밖엔 못 뵈.” 같은 구역에 살았던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말만 헛끔 잘못해도’ 붙잡아 갔다고는 하나 그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총살되는 일은 없었다. 때문에 박행구 사건은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좌익운동 하던 청년들은 곧 불어 닥칠 태풍의 씨앗을 미리 보기라도 한 듯 모두 일본으로 몸을 피했다. 이후 금능리는 아무도 좌익의 말을 꺼내지 않는 마을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을에서 경찰과 군인에 의한 희생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이 보장된 마을’³⁾이었다 해도 박행구를 제외하곤 군경에 의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던 데에는 당시 대동청년단 한림면단장이었던 양병직의 역할이 컸다. 4·3이 제주도를 본격적으로 휩쓸고 지나갈 때 금능리는 양병직 덕분에 태풍의 눈처럼 고요할 수 있었다.

“우리 마을은 뱅직이 국회의원이 이시난.” 할머니들이 거듭 강조해 말했다.

반면 양병직으로 인해 ‘사상적으로 깨끗이 보장된’ 금능리



금능인게



금 능 리 역 사 의 야 기

는 같은 이유로 무장대의 표적이 되어, 그해 겨울 무장대의 기습으로 다섯 명의 부락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1948년 12월 3일, 청·장년들이 마을 회의로 집을 비우고 없는 밤이었다.

산에서 내려와 금능1구³⁾ 쪽으로 들어온 무장대는 금능2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식량을 약탈하고, 가옥을 불태웠으며, 잠자던 주민 몇을 죽창으로 살해했다. 그 와중에 불타오르는 초가 속에서 일본군이 버리고 간 것을 보관해 두었던 대포알들이 폭발해 일대가 전쟁터처럼 요란해졌는데 이 폭발음으로 인해 무장대가 황급히 물러갔다고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경이 마을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아무튼 무장대가 마을에 머문 시간은 약 한 시간 가량이었으며, 이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바닷가로 피신 간 텅 빈 마을의 치솟는 화염 속에서 패전국의 녹슨 대포알 터지는 소리만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 날 무장대에 의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는 공우현⁶⁰대, 남, 이지형³⁹세, 남, 홍석아³⁴세, 여, 한성호⁸세, 남, 이순덕⁵세, 여으로 다섯 명이고, 이 날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이듬해에 사망한 양공겸³⁴세, 남과 이재온⁷⁷세, 남까지 합하면 총 일곱 명이다. 그 중에 서도 특히 잠들어 누운 자세 그대로 목이 잘린 '제일상회 공하르방'^{공우현}과 내장이 몸 밖으로 쏟아져 갈증을 애타게 호소하다 사망한 8세 한성호의 이야기는 목격자에 의해 참혹한 장면이 적나라하게 전해져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리하여 금능리의 4·3평화공원 마을별 희생자 명비에는 1948년 3월 군경에 의해 사망한 박행구와 그해 겨울 무장대에 희생당한 이지형, 홍석아, 한성호, 이순덕, 양공겸, 이재온의 이름⁴⁾이 새겨져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전쟁기에 목포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신응철³¹세, 남과 임태원³⁶세, 남, 1949년 초봄 무렵 일시에 행방불명된 이봉심³²세, 여, 이봉심의 남편³⁶세, 남, 이봉심의 자⁷세, 남의 세 식구, 그리고 김치옥의 처³¹세, 여, 한영진⁷⁴세, 남까지 총 1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무장대의 금능리 습격이 있었던 다음날인 1948년 12월 4일, 무장대에 대한 보복으로 한 무리의 군인들이 마을에 나타나 금능리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명리의 고오생⁴²세과 강남진²⁴세, 금악리의 박만복⁴⁰세, 김원수³⁹세, 김원화³⁸세, 송남울²⁷세, 송남일²⁶세, 그리고 금능리 주민들이 '오목수'라 부르던 명월리의 오창현⁴⁵세와 그의 딸 오태실¹⁷세을 공개총살했다. 같은 이유로 12월 5일에는 상명리의 부호진⁵⁷세과 양영남¹⁸세이 군인에 의해 희생되었다.

무장대에 대한 군대의 보복학살은 계속 이어져 12월 9일에는 명월리의 양홍흡²⁵세과 동명리의 김순환³¹세, 양한진¹⁹세이 한림국민학교로 연행된 후 총살되었으며, 수원리의 김만지²⁸세, 김농옥²⁶세, 임종관²⁵세, 하동환²³세이 수원리 '붉은굴'에서 학살되었다.

이어 12월 11일에는 동명리의 양무경³⁰세, 조창석²²세, 조창규¹⁹세가 한림국민학교로 연행돼 총살되었으며, 해를 넘긴 1949년에도 군대의 보복학살은 계속 이어져 1월 12일에 한림3구의 김평호²⁷세, 김문영²⁵세, 문해생²⁴세, 문기옥¹⁹세, 김문호¹⁹세가 희생되었다.

국지성의 짧은 돌풍들이 적도에서 하나의 소용돌이로 모여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熱帶擾亂}이 된다. 열대요란 속의 기류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가운데 저기압의 무풍지대인 태풍의 눈이 생성되고, 바람이 없고 고요한 태풍의 눈을 둘러싼 태풍의 벽 바깥으로 바람이 점점 강해져 최대풍속이 33m/s에 이르면 태풍, Typhoon이 된다.

태풍, Typhoon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티폰 Typhon에서 유래되었다. 티폰은 화염을 내뿜는 100개의 용 머리가 달린 무시시한 괴물로 그리스의 신들조차 감히 건드리지 못했으며, 티폰이 한 번 지나간 자리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완전히 불타고 소멸되어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다고 한다. ㄱIN

1) 4·3평화공원의 각명비에는 박행구의 사망 나이가 24세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집과 증언록에는 22세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망 날짜도 각명비에는 5월 7일로 실제 사망일인 3월 29일과 다르게 새겨져 있다.

2) 마을의 한 증언자는 4·3 당시 금능리의 상황에 대해 '사상적으로 깨끗이 보장된 마을이었다'고 표현했다.

3) 당시 마을은 동동네(동쪽)인 금능1구와 서동네(서쪽)인 금능2구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다.

4) '제일상회 공하르방'으로 불린 공우현은 마을별 희생자 명비에 빠져 있다.

금능인

\ 17년간 금능포구에서 제주의 맛을 전하는 금능포구식당 \

글·사진 | 김순일

금능바다의 신선함과 가정주부의 정성을 담은 물회와 조림





금능인게



/ 남편의 도전으로 시작된 금능포구식당 /

금능포구식당은 금능포구에 위치한 과거 어촌계 소유의 초가창고를 2001년 문영철씨가 공개 입찰을 통해 매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문영철씨는 금능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자, 현재 금능포구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차영례사장의 남편이기도 하다. 문영철씨는 과거 금능해변의 모살발회관을 위탁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금능포구에 횃집을 개업하였고, 금능 앞바다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물고기로 횃감을 마련해서 꽤 인기있는 식당이 되었다. 물고기도 잡아야하고 식당도 운영해야하는 문영철씨를 도와 줄 사람이 필요했고, 문영철씨는 한림읍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원부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영례사장에게 함께 일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시작된 차영례사장의 금능포구식당은 현재 17년째 운영하면서 금능리의 대표 식당이 되었다.

\ 변화와 개척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

금능포구식당은 문영철씨가 직접 잡은 물고기로 회를 장만하는 횃집이었다. 손님이 많아지자 식당에 주방장을 고용하고, 문영철씨는 물고기를 잡고, 차영례사장은 손님들을 담당했다. 그리고 주방이 바쁠때면 차영례사장은 매운탕이나 밀반찬을 만드는 주방보조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후에는 주방의 공백을 차영례사장이 메우면서 주방장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점심에는 물회를 판매하고, 저녁시간에는 회를 판매했던 식당의 메뉴에도 변화가 생겼다. 차영례사장의 물회가 나날이 입소문이 나면서 물회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져 메뉴에서회는 제외되고 물회와 조림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차영례사장이 있었기에 금능포구식당이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 음식 맛의 차이는 신선도와 정성 /

금능포구식당은 물회와 조림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제철 물회가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이고, 겨울이 되면 뜨끈한 조림과 물회가 함께 인기를 끈다. 물회 중에서도 자리물회와 한치물회가 가장 인기가 있고, 해삼물회, 켜치물회, 벤자리물회도 신선한 재료가 수급되면 그때그때 판매한다. 금능포구식당의 물회와 조림이 맛있는 이유는 남편 문영철씨가 금능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재료와 가정주부인 차영례사장이 가족을 위해 만들던 그 정성으로 음식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생선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철 생선들은 그날 판매할 양만큼은 수족관에서 활어로 보관하여 판매하고, 여분의 생선들은 생선이 나지 않는 계절을 위해서 차영례사장이 깨끗하게 직접 손질해서 즉시 급랭하여 보관한다.



/ 자리물회 /

/ 한치물회 /

\ 양념에 미리 버무려 비린내를 잡았다 \

제주도 음식에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의 고단함이 들어 있다. 과거 제주도 어부들이 바다로 일하러 가면 된장과 맹물을 준비해서 갔다. 그리고 편히 앉아 밥 먹을 시간이 없는 어부들은 맹물에 된장을 풀어 그때 잡힌 물고기를 썰어 넣고 급히 먹은 것이 물회이다. 이런 제주도 물회에 차영례사장은 조금의 변화를 주어 맛을 더했다. 싱싱한 생선을 썰어 양념장에 미리 버무려서 생선에 간이 베이게 한 후에 육수를 넣어 물회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회는 생선살에 양념이 배서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린내를 꺼려하는 육지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

/ 임산부 입덧을 이겨내는 물회 /

17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차영례사장에게는 고마운 손님들이 많다. 신혼여행 때 식당에서 물회를 먹었던 물회의 맛을 잊지 못하는 임산부가 입덧으로 고생하다가 포구식당에 다시 찾아와 물회를 맛있게 먹고 입덧을 이겨내기도 했다. 식당에서 전복죽을 먹어보고 친정엄마가 생각난다며 눈물이 맺혀서 포장을 부탁하는 딸이 있었다. 하지만 죽은 포장하면 맛이 변해서 포장해 줄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다시 함께 찾아온 딸도 있었다. “식당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식당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금능포구식당이 자랑스롭습니다.”라고 차영례사장은 말한다. 또 최근에는 젊은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주에서 나오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신선한 음식을 만들다보니 물회나 조림들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선호도 높은 음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능포구식당은 제주도를 대표하고, 금능리를 대표하는 식당으로 ‘제주의 음식을 육지 사람들에게 맛있게 전파하는 식당’이다. 금능포구식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한, 금능리에 대한 좋은 기억을 담기를 바란다. <IN



\ 금능리 모살밭 고구마 \

글·사진 | 김순일

금능리 환경에 맞춘 모살밭 고구마 재배법



금능리에서는 오랜시간 동안 바다의 모래가 겨울 북서풍을 타고 마을 곳곳에 갇혀 들어와 있다. 그래서 금능리의 밭은 대부분 모살(‘모래’의 제주어)로 이루어진 사질토양(砂質土)이다. 모살밭은 일반적으로 보수성이 낮고, 투수성이 높아서 토양에 작물이 필요한 영양분은 적지만, 통기성이 좋고 유기물의 분해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금능리 모살밭에 서부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고구마를 시범 재배하기 시작했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능리의 사질토양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고구마 품종 중에 신율미, 진흥미를 추천하였다. 이렇게 모래밭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매우 독특한 경우이다.

모살밭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다. 먼저 통기성이 좋아서 ‘흙 속의 이

산화탄소’와 ‘공기 중의 산소’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또 감자나 고구마는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생육하기 적합하다. 모살밭은 황토에 비해서 흙의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고구마의 초기 생육이 좋기 때문에 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리고 토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고구마가 성장하면서 고구마 본연의 모양을 잘 유지하여 성장하게 된다. 반면에 모살밭에서 고구마를 재배할 경우 단점도 있다. 모살밭은 황토에 비해 토양의 영양분 보유력이 낮아서 영양분이 빠르게 사라진다. 그래서 고구마의 수확량이 황토에 비해서 적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육하는 기간에 주는 추비(追肥)를 줄 때에 한번에 많은 양을 주기보다는 2주에서 3주 사이로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

금능리 농부들은 다년간의 재배경험을 통해

서 모살밭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살밭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것이 황토에 재배하는 것과 비교해서 생산성이 낮아서 점차 재배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특용작물 재배기술지도를 담당하는 문창준 농촌지도사는 “금능리와 같이 모래 토질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것은 뚜렷하게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질토 고구마 재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더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하겠습니다. 금능리 농민들도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당부한다. <IN>

2018년 금능리 마을행사 일정표

정리 | 금능리

일정	행사명	주관
1월	• 농업용수 정기총회	농지계
	• 노인회 정기총회	노인회
2월	• 마을 정기총회	금능리
	• 농항원 정비	부녀회
	• 마을제 봉행	금능리
	• 어촌계 정기총회	어촌계
3월	• 경로잔치	노인회
	• 부녀회 선진지 견학	부녀회
4월	• 한림읍민 종합체육대회	청, 부녀회
	• 경로잔치	노인회
5월	• 어버이날 행사	청, 부녀회
	• 마을 임시총회	금능리
	• 폐자원 수거	부녀회
	• 불가사리 해치 작업	어촌계
	• 어패류 방류 사업(오분자기)	어촌계
	• 마을길 제초 작업	청년회
6월	• 경로잔치	노인회
	• 탈의실 청소	부녀회
	• 해변 풀베기 및 환경 정비	청년회
	• 해수욕장 개장 고사	금능리
	• 행복마을만들기 도 콘테스트 준비	금능리
	• 제11회 원담축제 준비	금능리
	• 구)리사무소 철거 작업	금능리
7월	• 행복마을만들기 도콘테스트 참가	금능리
	• 제11회 원담축제	금능리
	• 제11회 원담축제 축하공연	금능리
	• 경로잔치	노인회
8월	• 행복마을만들기 중앙콘테스트 참가	금능리
9월	• 농항원 정비	부녀회
	• 경로잔치	노인회
	• 바다정화 작업	어촌계
	• 추석 단합 체육대회	청, 부녀회
	• 추석 단합 체육대회 축하공연	청, 부녀회
	• 경로잔치	노인회
10월	• 폐자원 수거	부녀회
	• 경로잔치	노인회
11월	• 경로잔치	노인회
	• 한수위 축제 참가	어촌계
12월	• 경로잔치	부녀회



2018년 꿈차롱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일정표

정리 | 편집부

일정	프로그램명 및 세부내용	
1월	• 오카리나교실 (매주 목요일 19-21시)	
2월	• 오카리나교실 (매주 목요일 19-21시)	
3월	• 풍물교실 (매주 화요일 20-22시)	• 『금능인』 2호 창간준비
4월	• 풍물교실 (매주 화요일 20-22시) • 『금능인』 2호 창간준비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5-17시) • 한라도서관 책축제 참가 (4월 14일)
5월	• 풍물교실 (매주 화요일 20-22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5-17시)	• 행복한 NIE 교실 (매주 월요일 20:20-22시) • 『금능인』 2호 창간준비
6월	• 풍물교실 (매주 화요일 20-22시) • 미술교실-마음의 지도 (매주 수요일 19-21시) • 『금능인』 2호 창간준비	• 행복한 NIE 교실 (매주 월요일 20:20-22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5-17시)
7월	• 풍물교실 (매주 화요일 20-22시) • 미술교실-마음의 지도 (매주 수요일 19-21시) • 인물역사 속으로 풍덩 (매주 목요일 19-21시) • 나는야 꼬마 파티쉐 (매주 목요일 16-18시)	• 행복한 NIE 교실 (매주 월요일 20:20-22시) • 게이트볼 교실 (매주 수요일 18-20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5-17시) • 『금능인』 2호 발간 (7월 28일)
8월	• 풍물교실 (매주 화요일 20-22시) • 게이트볼 교실 (매주 수요일 18-20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5-17시) • 마을해설가 (매주 목요일 20-22시)	• 미술교실-마음의 지도 (매주 수요일 19-21시) • 인물역사 속으로 풍덩 (매주 목요일 19-21시) • 나는야 꼬마 파티쉐 (매주 목요일 16-18시) • 맛으로 읽는 도서관 (매주 일요일 16-18시)
9월	• 게이트볼 교실 (매주 수요일 18-20시) • 마을해설가 (매주 목요일 20-22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5-17시)	• 인물역사 속으로 풍덩 (매주 목요일 19-21시) • 나는 그림책 소풍가요 (매주 수요일 16-18시) •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라도서관 일원)
10월	• 마을해설가 (매주 목요일 20-22시) • 전국도서관대회 참가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5-17시)
11월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5-17시)	• 『금능인』 2호 발간
12월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5-17시)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개관기념식	• 도서관의 밤 (작은도서관협회)

금능인

금능리 조직도

제공 | 금능리

이장
김성수

노인회장
박용진

운영위원장
이 장

감사
조미혜

청년회장
고영민

부위원장
송문철

감사
김남규

부녀회장
홍준희

이사무장
노진영

어촌계장
문영철

운영위원

문영남 · 고택준 · 장운봉 · 고석주 · 백동식 · 양민수 · 장규성

자조동장
양영재

자립동장
윤철준

협동동장
손성윤

근로동장
양익수



시가 있는 쉼터

바당에 가민

홍춘심

88세, 금능리민

우리 마을 금능엔 백모살 밭이라
농사도 7무라 불민 잘 안돼곡
바당에 의지허영 살았주

비양도 섬으로
미역 조물래 갈 적엔
나무덜 가져강 불추멍
하영 허민 배 굴라안지카부덴
망시리 배에 드라 매영
끄성 왔주게

우리 마을 금능엔 백모래 밭이쥬
농사도 가물면 잘 안되고
바다에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비양도 섬으로
미역 캐러 갈 때는
나무들 갖고 가서 불 때며
많이 하면 배 가라앉을까봐
망사리 배에 달아 메어서
끌고 왔어요



편집후기

금능에 자리 잡은 지 행수로 벌써 5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사람들에게는 금능을 '사랑스러운 마을'이라고 소개하곤 하는데요. 금능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이렇게 또 만들어졌네요. 열렬결에 참여하게 된 『금능인』 2호에서 제가 한 건 열심히 회식에 참여하고 메뉴 주문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지만 『금능인』 2호로 러블리 금능의 매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가 닿길 바랍니다.

편집위원 **강수희**

『금능인』 창간호에 이어 『금능인』 2호에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금능인의, 금능인에 의한, 금능인을 위한 『금능인』! 금능만을 생각하고 금능을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금능을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금능인』이 멋진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편집위원 **이윤영**

금능리로 이주해 온 후 『금능인』을 2년째 만들면서 마을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까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면서 『금능인』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수고'보다 '감사'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금능인』 2호가 금능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소통의 기회와 역사의 기록이 되기를 기대하고, 금능리는 찾는 사람들에게는 마을을 알고 배우는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위원 **김순일**

2018년의 시작을 『금능인』과 함께 하고, 2018년의 마무리 또한 『금능인』과 함께 합니다. 뒤돌아보니 2018년 금능에서의 추억이 이 한 권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추억을 모아 만든 기록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역사가 되겠지요? 마을의 추억을 기록하는 『금능인』이 차곡차곡 쌓여서 훗날 금능의 역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편집위원 **홍임정**